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3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거래고객
라이프환경기계(주) 김종건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거래고객
(주)프롬바이오 심태진 대표



IBK 기업은행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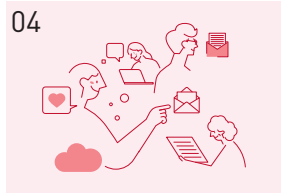
기업과 인재 를 연결 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본업과 관련된 제도와 서비스(예: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본사 센터에서 하십시오. (주)기업은행은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은행평가와 신용평가를 받습니다. (주)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1길 100, 10F. TEL: 02-979-1000, E-MAIL: info@ibk.co.kr



- 04 여성시대 특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 15 이달의 편지
'마을회관에서'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라이프환경기계(주) 김종건 대표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프롬바이오 심태진 대표
- 81 코너 속 편지
'첫 연애 첫사랑' 외
-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사무치는 마음
- 113 김일종의 스튜디오에서
교복을 벗고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3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종 **프로듀서** 안정민, 신유정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릉도 98.5

특 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보성 님 기억하십니까?

정주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며칠 전 텔레비전에 김보성 님이 나왔다. 허세와 겉멋에 사로잡혀 의리를 외치며 사는 남자. 허세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약 10년 전 나는 김보성 님의 전편이 됐다. 그때부터는 그의 모든 과한 행동들과 말투가 진심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10년 전 2014년 참 힘들게 살았을 때다. 근 10년간 운영하던 학원 사업을 접고 나니 빚만 2,000만 원이 남겨졌다.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겪고 나니 살던 그 동네가 싫었다. 그렇게 모든 걸 접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방 하나 구할 돈이 없던 나는 결국 남동생네 얹혀살기로 했다. 그 당시 동생이 식당을 시작했는데 워낙 바빴다. 일하는 남동생 부부를 대신해 난 어린 조카들을 돌봐주며 그 집에 살게 되었다. 조카 두 명과 내 아이들을 돌보고 동생네 가게 직원들 도시락을 싸주었다. 동생네 집 살림도 했다.

그때 우리 둘째는 아직 돌도 안된 아가였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난 분명 산후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우울증이라고 우울해할 수 없던 때였다.

우리 둘째는 이혼녀였던 나와 총각이었던 우리 신랑 사이에

서 태어난 아주 귀한 존재였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곱게 봐주지 않았다. 총각 꼬신 이혼녀의 딱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축복받아야 할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마저 손가락 질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이혼녀인 나와 살겠다고 부모도 십수 년 직장생활 하며 모은 돈도 다 버린 사람. 그 당당하고 멋있던 남편이 생판 남인 내 남동생 집에 얹혀살게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

돌도 안된 내 아이를 돌보며 그 당시 4세, 5세던 남자 조카들과 2학년이던 큰딸을 오롯이 내가 키워야 했다. 남동생 부부는 가게를 마치면 새벽 2~3시에 귀가했으니 말이다.

아기띠에 애 하나 안고 한 손엔 큰아이 손을 잡고 동네를 걸어간다. 큰애를 데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그 당시 핫플 레이스였던 경리단길을 지나야 했다. 복직이는 사람들과 현란한 간판들, 예쁜 가게들이 즐비하다. 그 길을 아이 하나는 안고 하나는 손을 잡고 걸어온다.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쓰는데 혼자 창피해 주눅이 든다. 예쁜 옷 가게에 걸려 있는 옷을 힐끔 본다. 직원이 나와서 응대할라치면 부리나케 도망을 쳤다. 내 물골을 보고 옷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내 자존감은 바닥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

매일 아침 딸과 조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9시가 안 된다. 동생네 부부는 11시가 돼야 출근한다. 그 시간까지 아기와 밖을 서성인다. 그냥 그 공간에 들어가기 싫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그냥 들어가기 싫었다. 놀이터 배회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마을버스 타고 용산 투어도

한다. 출근, 등교 시간이라 마을버스는 무지하게 복잡하다. 아이를 힘겹게 매고 있는 나를 보면 누군가 자리를 양보한다. 마다치 않고 감사하다며 그 자리에 앉는다. 민폐다.

마을버스 안에 핏덩이 우리 둘째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났다. 너무 창피해 안 울고 싶는데 그냥 눈물이 났다. 너무 힘이 들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매일 울었다.

그래도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건 남편이었다. 가끔 너무 속상해 울면서 전화하면 “우리 그냥 처남네서 나갈까? 지방에 가면 방 구할 수도 있어”라고 말한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사실 나간다는 건 돈도 돈이지만 조카들이 나 없으면 당장 어찌나 싫었다. 또 동생에게 받는 돈으로 조금씩 빚도 갚고 있었다. 그래서 뛰쳐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 넷을 재우고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나의 유일한 힐링 타임이었다. 애들 깰까 봐 온 집안의 불은 다 끈다. 그리고 부엌에서 조그만 상을 펴고 휴대폰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머리 맞대고 본다. 그 조그마한 화면 속으로 들어갈 듯하다. 그걸 보면서 맥주 한잔 마시는 그 순간. 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잔다. 지옥이 천국이 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길었던 2014년 11월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큰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간다. 아이를 데리고 걸어온다. 아기띠로 둘째를 메고 학교 앞 내리막길

을 조심조심 걸어왔다. 그런데 맨홀 뚜껑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아이를 멘 채 뒤로 짱 하고 넘어졌다. 꼬리뼈를 부딪히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이가 있으니 지나가던 젊은 여자 두 명이 다가와 나를 부축하려 한다. 아프기도 아픈데 그냥 내 모습이 미칠 듯 서럽다.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다. 그냥 계속 울기만 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영영 울었다. 그간 가슴에 담아둔 설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우니 주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온다. 괜찮냐고 물으며 날 일으키려고 한다.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말한다.

“이분이 태워주신다니 타고 가세요.”

나는 내 품에 안겨 있는 아기 때문이라도 일어서서 가야 한다. 그래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 남자는 자기 차를 향해 누군가를 손짓해서 부른다. 그러고는 이분 모시고 가야 하니 태우자고 한다. 난 그 차로 갔다. 커다란 검은색 차였다. 체면이고 뭐고 그냥 탔다. 차에 타니 ‘괜찮냐?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집에 가면 누가 있냐? 얼른 남편분께 전화해라...’ 계속 이야기하길래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 얼굴을 봤다. 비 오는 날인데도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 님이었다. 몰라뵈었다고 죄송하고 고맙다고 또 눈물을 흘리자 아픈데 무슨 정신으로 절 알아보겠냐며 웃는다.

큰아이에게 ‘집이 어디냐? 몇 동이냐?’ 묻고 운전해 주시던 분에게 집 앞까지 가자고 했다. 집 앞에 다 와서 내리려 하니 비 맞으니 잠깐 기다리라며 자기가 먼저 내린다. 그러고는 우

산을 나에게 씌워준다. 옆에 있던 큰딸에게 “나는 엄마를 부축할 거니 넌 혼자 따라올 수 있지?” 하고 따라오라 손짓한다. 날 부축하고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눌러 현관까지 온다. 그리고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돌아선다. 빨리 남편에게 연락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그리고 5분 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김보성 님이 었다.

“차에 우산 놓고 가셨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아무나 문 별걱별걱 열어 주면 안 돼요.”

밝게 웃고 간다. 저 사람 진심이구나. 설정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라 진짜 저런 사람이구나. 진심인 사람이구나. 빼뜰어진 눈으로 나는 그를 오버하는 사람, 가식적인 사람으로 바라봤는데 말이다. 사람의 진심은 마치 주머니 속 송곳처럼 어쩔 수 없이 튀어나와 드러나는 것인가 보다.

글을 쓰다 보니 10년 전 내가 이랬구나 싶다. 그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이제 곧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 더 이상 빚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남편과 나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다.

김보성 님 기억나십니까? 2014년 11월 이태원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에서 아기 안고 가다 맨홀 뚜껑에 미끄러져 넘어졌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다쳤을까 걱정해 주셨던 그 품 안의 아기는 벌써 11살이 되었네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케냐의 봄

임혜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저는 지난겨울 성탄절을 기다리며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름하여 ‘케냐의 봄’ 프로젝트. 성탄절이라 다들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케냐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산타가 되어서 케냐 아이들에게 새 학기를 채워줄 선물을 준비해 봐요’라는 뜻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지요. 마침 겨울방학 때 저희 가족이 케냐에 가기로 했거든요.

한 사람이 ‘만 원 꾸러미’를 후원해 주시면 한 명의 어린이에게 선물이 가는 거예요. 꾸러미엔 연필, 지우개, 필통, 빵, 음료수, 공책 등이 들어가는 거지요. 대신 ‘한 사람은 딱 1명만 후원할 수 있음, 근데 아쉬우면 주변에 소개해도 됨’이라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하시라고 이런 규칙도 만들었어요.

처음엔 1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시작했는데 글썄 아이들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뭘 이런 걸 하냐고 뜻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나의 심기를 건드린 아들과 딸은 마음이 바뀌어 전교생들에게 구구절절 메일을 보내서 함께하자 독려했고요. 그래서

친구들,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까지 후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마음을 모으고 지인들은 또 다른 지인들에게 이 내 용을 퍼 날라 주셨어요.

결국 150명이 넘는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27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모금되었어요. 신나서 달려로 바꾸어서 비행기를 탔죠.

케냐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케냐의 초·중·고 학교였어요. 교복을 예쁘게 입고 눈이 반짝이던 아이들은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아서 학교를 나오는 경우였어요. 여긴 교복을 입어야 학교에 올 수 있는데 교복이 비싸대요.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오는 아이들도 많답니다.

이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고 한국에서 준비해 온 ‘잠보’라는 노래를 불러 주었어요. 까칠할 것만 같은 중·고등학교 생들이 너무 해맑게 박수를 치며 바라보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고맙든지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선물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글썽 새 가방이 200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후원금이 기적을 만들었네요. 우리 스태프들이 깎고 깎아서 새 가방을 구해왔어요” 하더군요. 그런데 가방만이 아니었어요. 그 속엔 필통, 지우개, 자, 공책, 컴퍼스에 사탕까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 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점심으로 먹을 식빵과 음료수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대망의 그날 200명의 수정구슬 같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한 방에 모였어요.

“Our family come here to meet you. And give you something” 하니 아이들이 합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에게 가방을 메어 주었어요. 그 놀라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나의 가방, 그것도 공주가 그려진 새 가방을 멘다는 건 꿈만 같은 일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제발 이 가방 메고 마음껏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데 필요한 돈도 떨어지지 않게 지해도 넉넉히 부어주세요.”

기도하며 나눠주었어요.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데 저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것처럼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200명의 아이에게 선물을 다 주었어요.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그 후로도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을 방문했어요. 쓰레기장 바로 옆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는 고아원 아이들. 우리가 가니 와락 안아주던 그 아이들에게 가져간 과자와 사탕을 주는데요. 그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 왔어요. 얼굴엔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는데 처음 해보는 것이 낯설면서도 좋아서 더 해 달라는 아이들.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어줬더니 무슨 보물 다루듯 꼭 껴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고2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상해. 나는 진짜 해준 게 없는데 자꾸 나한테 고맙대.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내가 너무 고마워. 마음이 이상해.”

맞아요. 내가 준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엄청난 넘치는 사랑

을 오히려 우리가 받았어요.

케냐를 떠난 지 3일 됐는데 아직도 아이들의 눈망울이 눈 앞에 선해요. 그리고 빈민가의 그 꼬맹이가 했던 그 말이 잊히질 않아요.

“See you.”

꼭 다시 가볼 수 있겠죠? 그 아이들 다시 한번 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장난꾸러기 꼬맹이가 했던 말.

“I pray for you.”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그 아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집도 부모도 없이 다 쓰러져 가는 판잣집 같은 학교에 살면서 쓰레기 냄새 펄펄 나는 그곳에 사는 그 아이가 세상 다 가진 미소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대요. 처음엔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뭐라도 주고 싶어서 간 건데 그 아이들에게 넘치게 받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왜 그리 가슴이 텅텅 빈 것 같던지요. 그렇게 허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로 선물 주고 끝인가 싶어서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앗,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비 오면 운동화가 난리가 나서 예쁜 노랑 장화도 보내줘야 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수영장 같은 온천으로 소풍도 보내줘야 하니까요.

다시 가슴이 뻥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큰 눈이 튀어나오지 않게 살살 하나씩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생각이예요.

<여성시대 문자 모음>

[7228] 제 직업은 식복사입니다. 신부님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열 분의 신부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무척 생소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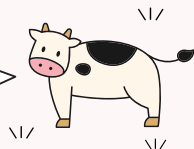
[6729] 저는 웃음 치료 강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을 다니며 어르신들께 웃음과 노래, 율동을 하며 한 시간 수업하지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행복합니다.

[1823] 저는 종합주류도매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주, 맥주, 사케, 와인, 양주 등 수백 가지를 배송합니다. 1박스에 20킬로그램이나 되는 제품을 매일 200박스 정도 배송합니다.



[6895] 저는 절에 들어가는 부처님 얼굴을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부처님 얼굴을 보고 인자한 인상이라고 좋아하시면 저 또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8587] 저는 낙농 헬퍼입니다. 낙농 헬퍼란 젖소 우유를 짜는 일입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아침 8시에 집에 오고 오후 3시에 가서 저녁 8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일을 하죠.





- | | | | |
|----|-------------------|----|---------------|
| 16 | 마을회관에서 | 40 | 난 너를 응원한다 |
| 18 | 고3 아들의 설거지 아르바이트 | 43 | 휴대폰 쥐! |
| 21 | 호박당구장의 영웅들 | 49 | 세 사돈 모임 |
| 26 | 10년 전 오늘, 여성시대 | 52 | 학교 청소를 하며 |
| 28 | 배달 속도에 목숨을 걸다 | 54 | 주황색 바가지 |
| 32 | 의좋은 삼 형제 | 57 | 인생 자전거 |
| 35 | 아들의 국토대장정 | 60 | 이층 침대가 맺어준 인연 |
| 38 | 프리다 칼로의 눈썹을 가진 여인 | | |



Letter 01

마을회관에서

정난채 | 충북 충주시

평 소와 같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깹습니다. 농사철이라면 저는 지금쯤 벌써 과수원에 나가 있었겠죠. 하지만 농사철이 아닌 때엔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일어나 마을회관에 가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전에 자랑할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올해 마을회관의 신입 회원이 되었답니다.

마을회관에서 뭘 하나고요? 두 명씩 점심 당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며 점심을 합니다. 당번 어른이 집에서 반찬을 두세 개 가지고 오시고 찌개와 밥은 주로 회관에서 만듭니다.

어느 날은 솜씨 좋은 어른님께서 멸치볶음, 곁절이, 시금치나물, 오이김치, 콩나물 등을 싸 오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마을의 이장인 제 담당이죠. 지나가는 분들은 농담조로 “이장님, 밥 한 공기나 먹었는데 설거지하셔야죠. 힘내세요” 그러면 저

는 “그렇죠. 맛있는 밥을 먹었으니 설거지는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아요” 하며 빙그레 웃어줍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보면 어느새 화투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쌌어~ 쌌어~.”

“아이고~ 난 피박이여. 일 점 이 점 삼 점. 어? 금주 엄마도 피박이니 육십 원 이리 내.”

화투 하나에도 한바탕 웃음이 터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장님~” 하며 어르신 한 분이 절 또 부르네요. 딸이 휴대폰을 새것으로 바꿔줬는데 딸내미랑 손자 사진이 있는데 볼 줄을 몰라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요거 꽃 그림 누르면 나와요.”

“아~ 그러네. 딸이 알려줬는데 자꾸만 까먹어.”

어르신은 은근히 자식들 자랑도 섞어가며 고맙단 인사를 대신합니다.

다른 어르신께는 어두울 때 밖에 나가실 때 손전등 켜는 방법과 사진 찍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가르쳐드릴게요” 생색도 내보았답니다.

농사철 내내 땀방울로 얼룩졌던 얼굴들, 일바지에 얼룩진 옷을 입은 어르신들 모습만 보다가 분홍색 점퍼에 화장도 하고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모습이 곱게 보입니다.

“어~ 윗도리 예쁘네. 어디서 샀어?”

“이거 우리 아들이 이번 생일에 사준 건데요. 메이커라나.”

이렇게 선하고 밝게 웃는 얼굴들을 보면 절로 뿌듯해집니다. 오늘도 전 하하하~ 정겨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회관 문을 열고 나옵니다.

Letter 02

고3 아들의 설거지 아르바이트

송은경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우 리 집 고3 아들은 4년째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가 오른쪽 손목이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설거지하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설거지해주는 사람도 아니기에 제가 아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3명인데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늦둥이로 가족이 다섯 명이다 보니 하루 설거지 양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큰아이 둘은 성인이었지만 설거지를 그냥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설거지 한 번 할 때마다 5천 원씩 줄 테니 할 사람 손들어~” 했더니 취준생이었던 큰아들과 둘째 딸이 서로 시간 될 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년 정도 해주다가 각자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설거지 알바를 하는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당시 막내아들은 중3이었는데 옷 입는데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때

용돈을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줬는데 매번 옷 사달라고 하면 저와 큰아들이 “교복 입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 “누나도 형도 학생 때 용돈이 모자라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이 참았어~” 하면서 핀잔을 줬지요.

막내는 그럼 본인이 돈을 벌어서 사면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2021년 2월부터 본인이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옷을 마음대로 사서 입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막내아들의 설거지 아르바이트가 시작됐지요.

처음엔 중3 아들이 설거지하면 몇 번이나 할까, 돈이 필요할 때나 한 번씩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처음 설거지하던 날은 1시간 넘게 걸리고 물도 계속 틀어놓고 얼마나 쓰는지 정말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할 때 끈기 있게 못할까봐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할 때까지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막내아들의 설거지 아르바이트는 3년째 열심히 합니다. 막내아들의 끈기가 정말 대단해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아침에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30분에 셔틀 타고 학교 갔다가 월, 수, 금요일은 학원 갔다 오면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오는데 그래도 설거지 알바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한 번에 5천 원씩 주면서 시키는 설거지이지만 가끔은 ‘내가 용돈을 넉넉하게 주면 설거지 안 하고 편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할 텐데...’ 하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해요. 남편도 “고3인데 설거지를 시키면 되냐?” 해서 아들한테 “방학 동안엔 독서실도 다니니 엄마가 할게” 했는데 아들이 설거지해서 버는 만큼 용돈으로 줄 거 아니면 계속 자기가 돈 벌어서 마음 놓고 옷도 사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면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7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엔 옷 사는 데 다 쓰더니 지금은 저축도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되고 한 달 용돈을 3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큰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동생한테 매달 2만 원은 주식 사서 적립해 주고 3만 원은 용돈 하라고 이체해 주거든요. 막내아들은 그 용돈을 다 적금으로 저축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에겐 목표가 있다고요.

막내아들의 목표는 해외여행과 스마트폰. 큰아들도 둘째 딸도 본인들이 용돈을 모아 대학 다닐 때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경험이 정말 좋았다고 막내한테도 열심히 모아서 꼭 다녀오라고 얘기해줍니다.

저는 아이가 설거지해주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늦게 오거나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일하고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설거지까지 쌓여 있으면 저녁 차리기 정말 싫은데 설거지를 싹 해놓아 주면 식사 준비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아들이 하루에 30분 정도 설거지하는데 그 시간을 쓴다고 해서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과 쪽인데 국어만 3등급이고 나머지는 1, 2등급이고 공부하라고 말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이니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솔직히 불편한 점도 하나 있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바로 해야 하는데 아들이 독서실에서 올 때까지 그냥 놔둬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설거지를 해야 했던 시간에 책도 보고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지금의 여유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막내도 직장에 다니게 되면 설거지에서 손을 떼겠지요? 그러면 그때 남편이 좀 해주려나요. 지금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알미울 정도네요. 퇴직하면 할 거라는데 기대해 봅니다.

Letter 03

호박당구장의 영웅들

정한성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오 늘도 밤늦게 집 근처에 있는 호박당구장으로 갑니다. 5년 전 부터 쓰리 쿠션 당구를 즐기고 있는데 그 재미가 제법 쏠쏠 합니다. 기본기가 부족하여 승률이 20%에도 미치지 않아 당구를 칠 때마다 카운터에서 계산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중독 수준으로 당구장을 찾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쓰리 쿠션은 그 인기가 대단하여 여러 스포츠 채널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PBA란 룰을 새로이 만들고 우승자에게 1억이나 2억의 거액의 상금을 주니 세계적인 유명 선수들이 몰려와 우리나라는 가히 쓰리 쿠션의 메카라고 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즐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스포츠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땀이 별로 나지 않아서 운동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걸어 다니고 앉고 서고 허리를 굽히고 때로는 팔을 허리 뒤로 돌려서 치는 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쓰기 때문에 제법 운동량이 있습니다. 또 쓰리 쿠션의 매력은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는 겁니다.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 ‘로드리게스’ 시스템, ‘지그재그’ 시스템이니 하는 것 등을 익히고 선수들 경기를 보면서 공부하고 연마하다 보면 당구 레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5년이나 쳤는데도 아직 15개에 머무는 걸 보면 머리가 그리 좋지 않고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 같아 씁쓸하지만 성격이 치밀하거나 연구형이질 못해서 대충 계산하고 그냥 당구 자체를 즐기는 편이라 레벨 상승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계산을 좀 더 신중히 하고 기본에 충실해 당구알을 맞출 때의 그 짜릿함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낚시로 치면 40cm가 넘는 월척을 낚은 기분이고 등산으로

치면 가파른 산봉우리 하나를 정복한 기분일 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당구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취미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호박당구장에 난데없이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한참 당구를 치고 있는데 당구장 사장님이 다소 들뜬 목소리로 “우리 태훈이가 4강에 진출했다”고 생중계를 하신 겁니다. 강진군에서 개최한 ‘2023 제5회 강진군 청자배 당구대회’에 출전한 김태훈 후배님이 260여 명이 출전한 대회에서 4강에 올랐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구장에서 출전한 동호인 중 최고 성적은 3회전 진출 정도였으니까요. 당구장에 있던 동호인들은 마치 자기가 4강에 오른 것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구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번엔 태훈 후배님이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구장엔 다시 환호성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실시간으로 결승전에서 꼭 이겨서 승리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짜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태훈 후배님이 결승전에서 이겨서 우승자가 된 것입니다.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후배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우승컵과 함께 ‘2023 제5회 강진군 청자배 광주·전남 당구대회 1등! 3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을 들고 우승자 아니 챔피언 아니 영웅처럼 등장했습니다.

당구 한 번 우승했다고 영웅이라 칭하는 것이 너무 호들갑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키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만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면 영웅 아닐까요? 더군다나 김태훈은 당구 실력도 좋지만 몹시 겸손하며 인사를 잘하고 상대방을 잘

배려해 줍니다. 참으로 인간미가 넘치고 여유가 있는 멋진 후배이기에 영웅 칭호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호박당구장 우병수 사장님은 당구장에 우승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큐대에 사인을 부탁을 했더니 <김태훈, 우승 기원>이라고 새겨주더군요. 저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라며 써준 겁니다. 21살이나 어린 후배지만 참으로 생각이 깊고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웅은 토요일에 호박당구장 동호인들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비록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20여 명의 동호인들이 즐겁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 후배님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당구장으로 갔습니다. 배려심 깊은 우리들의 영웅은 오늘 영광스럽게도 저와 게임을 해주었습니다. 고수들은 하수들과 잘 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당구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웅은 25개, 저는 15개를 놓고 시합했는데 배려심 깊은 영웅은 저에게 자신감과 자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인지 많이 봐주면서 치는 눈치였습니다. 전에 보니까 어려운 공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쳐내고 섬세함과 파워를 겸비하여 보기에든 시원시원한 맛이 있었는데 영웅은 제가 14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듯하더니 마지막 25개를 치며 시합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잘 배웠습니다”였습니다. 제가 할 말을 영웅이 해버린 겁니다. 오늘도 저는 이 나이 어린 영웅에게 당구의 수는 물론 배려심이라는 것을 하나 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카운터에 들러 당구비를 계산해야 했는데 호박당구장 최고수이자 주인인 우병수 사장님이 제게 김을 한 톨 건넵

니다. 난데없이 무슨 김이나 물으니 김경민 동호인이 당구장 어르신분께 선물로 보냈다고 가져가라 합니다. 원초가 곱창처럼 꼬불꼬불하다고 하여 곱창김이라 한데 집에 가져갔더니 아내와 며느리가 맛이 아주 좋다고 엄지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을 위해 고가의 김을 선물로 나눠준 경민 아유님 또한 '곱창김의 영웅'이라 할 것입니다. 손수 힘들게 만든 김을 선뜻 선물로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조만간 두 영웅과 동호회 사람들을 모아 조촐한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 볼까 합니다. 당구대회에서 박진감 넘쳤던 영웅 탄생의 신화와 곱창김을 만드는 방법 등이 아기자기하게 오가겠지요. 퇴직하고 이런 영웅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몹시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당구를 치다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 김태훈 영웅과 결승에서 만났던 분의 연세가 74세였다고 합니다. 저보다 11살이나 연상인데 준우승을 차지하셨다니 이분도 영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 파크골프, 탁구, 배구, 족구 등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비록 우승 준우승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도전해본다는 것 자체가 '작은 영웅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곱창김의 영웅'처럼 남을 위해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따스하고 넉넉한 영웅들도 많이 탄생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실력이 많이 부족하여 대회에 나가면 1회전 통과도 어렵겠지만 오늘 우리 영웅과 함께 당구를 치면서 다음 대회에 같이 출전하자고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대회 출전은 처음이라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도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며 연구에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Letter 04

10년 전 오늘, 여성시대

이유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 14년 1월 출근길 직행버스 안 라디오에서는 매일 여성시대가 흘러나왔어요.

당시 여성시대에서는 일터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점에서 일한 지 일 년 된 막내 직원이었어요. 함께 일하던 분들은 모두 서점에서 일한 지 이십 년을 훌쩍 넘은 분들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서점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즐거운 일을 만들어보자 싶어 사연을 보냈는데 덜컥 소개되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던 서점도 사연이 소개되던 날만큼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서점 안의 모두가 함께 귀를 기울였어요. 서점에서 일하던 젊은 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분은 눈물도 흘렸지요. 같은 시간, 각자의 공간에서 사연을 들었던 손님들과 거래

처 사장님들,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연락해 올 정도로 그날의 사연 소개는 인기였습니다.

상품으로 받게 된 삼겹살로 서점 사람들 모두가 둘러앉아 기분 좋은 회식도 하게 되었지요.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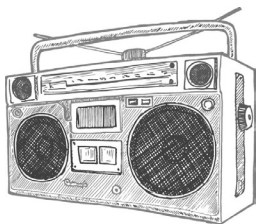
그렇게 시절을 바치고 웃음을 보태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이들은 지금 서점에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하러, 조금 일찍 쉬고 싶었던 건지 누군가는 일찍이 하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젊을 때보다는 더디어도 여전히 서점에 자리하고 있는 든든하고 고마운 누군가도 있고요.

지금도 사연이 소개되던 그 계절이 되면 누구랄 것 없이 웃으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게 벌써 10년이나 되었다니 신기합니다.

그 사이 저도 결혼하고 서점을 제 놀이터 삼아 노는 아이도 태어났네요. 언젠가 아이가 엄마의 추억을 이해하게 될 때가 오겠지요. 그때 참 즐거웠노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라디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한 일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문득 보고 싶은 사람들, 지나온 시간이 생각나 여성시대를 오랜만에 두드려보았습니다. 여성시대에 또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네서점들에 응원을 보냅니다.



Letter 05

배달 속도에 목숨을 걸다

애청자

얼 마 전까지 나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투잡을 뛰게 된 것이다. 퀵 배달, 대리운전 등을 하던 중 아는 선배의 부탁으로 주말에 배달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선배의 가게는 배달 및 테이크아웃 전문 고깃집으로 주말이 되면 인근 주택가에서 배달 수요가 많은 편이었다. 영세한 가게를 운영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넉넉히 쳐주는 선배가 고마워서 나는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배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해본 결과 업종 특성상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고기를 구워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의 수분이 빠지거나 식기 전에 고객에게 배달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해 나는 도로 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등 적잖이 무리를 했다. 오토바이 운전엔 제법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순간이 두세 번이나 찾아왔다.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과거 피자 업체에서 시행했던 ‘30분 배달 보증제’가 떠올랐다. 주문 접수 후 요리 과정을 거쳐야 하니 실제 배달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15~20분. 이 때문에 오토바이 속도는 빨라졌고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허다해 자연스럽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다. 그러다 19세 피자 배달원이 배달 중 버스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30분 배달제는 사라졌다. 내 경우 30분이라는 제한 시간은 없었지만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재구매율을 올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달 속도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들 사이사이를 칼치기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직진 차량을 보고 기다려야 했는데 급하게 빠져나가려던 내 과실로 난 사고였다. 접촉 사고가 나면서 나는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갓 구워서 모락 모락 김이 나는 고기들이 도로 한복판에 쏟아졌다. 다행히 사고 순간 감속한 덕분에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 마음을 쓸어내리면서도 아차 싶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켰구나!’

길바닥에 누운 채로 고개를 들어 사고 차량 쪽을 바라보니 고가의 외제 차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짧은 순간이지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게도 영세한 상황에서 선배가 과연 오토바이 보증을 들어냈을까? 들어봤다면 과연 배상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고 결국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모로 선배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차에서 내린 차주가 나에게로 다가와 “괜찮으세요?” 하며 내 상태를 살폈다.

“네. 전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차는 좀 어떤가요?”

차를 살펴보니 오토바이와 부딪힌 뒷문이 살짝 찌그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비싼 외제 차와 접촉 사고가 날 바엔 차라리 집에서 쉬거나 할 걸 몇 폰 벌겠다고 나와서…!’

나는 자책하며 고개를 바닥에 떨구었다.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진 고기와 채소들이 마치 내 처량한 신세를 대변해 주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다렸어야 했는데 배달하다 보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배달 중이셨나 봐요? 그래도 조심하셨어야죠. 아저씨도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상대방의 지적에 할 말이 없어진 나는 죄송하다며 연거푸 사과를 했다. 내 감정이 상대에게 전달이 됐던 것일까. 차주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배달 일 하는 분들은 몸이 생명인데 다치셔서 어떻게 해요. 얼른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제 차는 제가 수리할 테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십시오!” 차주의 말에 나는 왈각 눈물을 쏟을 뻔했다. 명백한 내 잘못인데도 수리비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네, 다음부터는 신호도 잘 지키고 절대 과속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칼치기, 끼어들기, 새치기, 과속, 신호위반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한 안전 운전 전도사가 되어 같은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어린 친구들에게도 항상 안전 운행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동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틈새운전, 지그재그 곡예 운전, 인도 주행 등 난폭 운전을 삼가야 한다. 조금 더 빨리 배달하려는 생각이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금전적 손실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비자들 역시 빠른 배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곡예운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아량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배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Letter 06

의좋은 삼 형제

김병순 | 서울 광진구 구의동

저희 아버지는 1930년생으로 일제강점기에 중학교 교육을 일
 본어로 받아 일어를 잘하고 그때 상업학교에 다녔던 관계로
 은행에서 근무해서 주산을 잘 다루셨습니다. 한국전에도 참전하여
 육군 상사로 제대하고 사업으로 음반 제작을 하면서 큰돈도 만져보
 셧답니다.

제게 아버지는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 8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받으신 진단명입니다. 하남시에서 주말농장을 하며 두
 분이 참 재미있게 사셨는데 이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저는 그때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좀 살만해져서 이제는 부모님께
 받은 따사로운 사랑을 되돌려드려야지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버
 님이 자주 깜빡깜빡하신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걱정을 받으셨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머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의 병명으로 저도 그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8년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몇 주가 되지 않았습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시울이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는데 여기에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상속 문제가 그것으로, 이 일로 50여 년 전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의좋은 형제’란 글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사이좋게 농사를 지은 형과 아우가 상대방의 난가리에 벋단을 몰래 가져다 놓다가 우애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삼 형제가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전 둘째이고 위로 형, 아래로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이 가장 많이 갖고 그다음이 저 그리고 형이 가장 적게 갖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삼 형제 모두 사업가인데 형은 사업에 성공하여 여유가 있고, 저 또

한 제 앞가림 정도는 하는 사업을 하는데 스포츠용품점을 하는 동생은 코로나19로 힘든 날을 겪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의견은 앞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니 장남에게 더 갔으면 좋겠고 현재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는 입주 때에 동생이 잔금을 치러 주어 입주가 가능했으니 동생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지요. 저는 13년여를 해외에 주재원으로 있었던 관계로 뒤늦게 합류해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병원에 8년 가까이 모시고 다닌 것밖에는 이렇다 할 효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형에게 온 SNS 메시지에 동생과 저 그리고 형 순서로 재산을 나눈다기에 처음에는 형이 가장 많이 갖고, 둘째인 제가 그다음, 막내인 동생이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가장 많이 주겠다는 형의 메시지에 동생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신이 가장 적게 받겠다고 하고, 저는 공헌한 바가 없으니 제가 가장 적게 받겠다고 하고, 메시지 창이 삼 형제의 아름다운 심성으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것을 읽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찼끔 나더라고요. 마침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당신, 왜 그래?” 놀라서 묻더군요.

상속 재산 때문에 형제가 의절하고 아예 남처럼 사는 지인도 보았는 지라 우리 형제들의 벗단 서로 없어주는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음을 아는지라 혹여 이 재산 분배 때문에 그간의 형제애가 깨지면 어떡하나 속을 조금은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니 스르륵 무장해제가 되고 속을 짓누르던 납덩어리가 사라지듯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형제 복이 정말 많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형제여~ 내 가족들이여~ 이대로만 가다오. 강릉 김가여!

Letter 07

아들의 국토대장정

김영희 | 경기도 오산시 여계산로

작년 12월 28일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하는 날, 삼 남매 중 막내 인 아들은 합격하지 못했다. 외출 후 들어오는 아들 눈에 눈물이 보였다. 죄송하다는 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 밖에 달리 해줄 말이 없었다. 퇴근한 남편도 아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밤새 잠을 못 자는 것 같았다.

아침에 밥을 먹으며 잠시 여행을 간다가에 머리 좀 식히고 오라고 남편이 허락했다. 그런데 그 여행이 걸어서 부산까지 가는 국토대장정이란단다. 이 추위에 또 차는 얼마나 위험하냐며 나는 여러 이유로 반대했다. 물러서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오겠다며 나를 설득하기에 바쁜 아들을 보니 반대해도 갈 것 같아 허락했지만, 출발도 하기 전에 걱정과 속상함에 괜스레 눈물이 났다. 딸들은 동생에게 잘할 거라고 격려해 주고 나까지 위로했다.

12월 31일 아들은 새벽에 일어나 길 떠날 준비를 하고 누나들은 집을 나서는 동생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멋지다고 아무나 못 하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고 용돈도 줬지만,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여 보내고 싶어 이것저것 준비하던 나는 이 엄동설한에 많은 차가 오가는 길을 위험하게 걸어갈 아들을 생각하니 오금이 저렸다.

아들이 집을 나서자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들이 중간중간 문자와 사진을 보내오니 조금은 안심이 됐다.

동시에 가족 문자방은 불이 났다. 많이 갔네, 조심해라, 아무 차에나 타지는 마라, 큰딸, 작은딸, 남편도 나도 걱정 글로 안부를 전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숙소에 도착했어요> 하는 아들 문자가 어찌나 고맙고 반가운지. 아들의 기행문과 알림 문자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1월 1일에는 우리 가족은 동해로 해맞이하러 가서 복을 빌곤 했는데 올해는 아들이 낮선 산 중턱에서 해맞이 사진을 찍어 새해 인사를 보내왔다. 잠이 많은 아인데 일찍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짠했다.

6일째 가족 문자방에 올라온 사진 속 아들 모습이 수척해 보이자 누나들이 밥 사주고 응원해 주겠다고 휴가 내고 아들한테 갔다. 하루만 있다가 오기로 했는데 누나들은 동생을 두고 올 수 없었는지 가족 문자방 사진에 셋이 같이 걷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니 고맙고 대견하고 아이들한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마움과 뿌듯함에 코끝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어 거리 풍경과 함께 중간중간 누나들과 예쁜 카페에서 차 마시는 여유로운 모습도 올라왔다.

딸들은 결국 2박 3일 동안 동생과 함께 대장정 길을 같이 걸어주었

다.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90km를 걸은 딸들은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발톱에 멍이 들었지만, 셋이 같이 자면서 직장, 친구,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웠던 일, 즐거웠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공감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길도 걷는 모습에 우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함과 든든함을 느꼈다.

이번 일이 없었다면 언제 삼 남매가 그렇게 많은 시간 말을 하고 서로를 느낄 수 있었을까. 평소엔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고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을 얻었으니 감사해진다.

딸들이 돌아오는 날에는 내 여동생 부부가 밥이라도 사준다고 애들한테 갔다. 이번에는 가족 문자방에 5명이 길을 걷는 사진, 거한 상차림 사진이 올라왔다.

고마운 동생 부부 덕분에 딸들은 잘 올라왔다. 딸들은 90km 거리를 걸어서 다리가 아파 잘 걷지도 못하지만 무언지 모를 자신감과 서로 간에 애뜻함이 엿보인다.

아들의 여정은 계속 이어지고 어느 동네인지 아저씨 한 분이 오만 원을 주며 격려해 주셨다고 오만 원짜리를 들고 감동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길 위에서 만난 분들의 격려와 칭찬이 아들 앞날에 큰 힘이 될 것 같다.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안전하게 세상을 배우고 오기를 두손 모아 기도한다.

Letter 08

프리다 칼로의 눈썹을 가진 여인

류주영 | 광주광역시 남구

“**효** 정아, 엄마 눈썹 그려봤는데 어때?”
“어...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 닮았네.”

내가 그린 첫 번째 눈썹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고른 큰딸의 평이었다. 유방암 진단 이후, 나의 일상은 갑자기 멈추고 외모도 또한 변했다.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14일쯤 지나니 머리카락이 송송 빠져 머리 카락을 다 밀어버려야 했다. 머리카락 빠지는 거야 많이 들어왔던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몇 차례 항암주사를 더 맞았더니 눈썹과 속 눈썹까지 빠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진한 눈썹의 부모님 유전자 덕분에 나는 눈썹 칼과 가위로 위아래 빠져나온 눈썹 털을 정리해 눈썹 모양을 만들면 충분했다.

세포독성 항암제가 포함된 여섯 차례 선 항암이 끝나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하니 민머리에서는 조금씩 머리카락이 돌아났다. 하지만

눈썹은 머리카락보다 더디 자란다. 색색의 모자 등으로 민머리는 감춰보는데 듬성듬성 눈썹 몇 올이 남은 허연 눈썹의 내 얼굴은 영 적응이 안 되었다. 그래서 항암 전 꼭 해야 할 일 중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 등과 더불어 눈썹 문신이 있나 보다.

눈썹을 그려보자. 언제가 화장품 살 때 샘플로 받은 눈썹 펜슬을 찾아봤더니 몽당연필처럼 생겼다. 조심히 연필 깎는 것처럼 깎아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눈썹 털 사이사이를 연결해 보았다. 가느다란 선으로 된 눈썹이 영 신통치 않다.

내 하소연을 들은 동생은 아이새도 팔레트 중 진한 색을 골라서 눈썹 털 사이를 메꾸듯 그려보라고 했다. 화장대에 앉아 브러쉬로 색을 더하며 그린 것이 오늘의 내 눈썹이 된 것이다.

너무 진하게 그려졌나 싶는데 “푸하하~ 엄마 원숭이 같아” 방에 들어온 둘째 딸이 꺽뚝을 날리고 나와 두 딸은 눈물이 나도록 한참 웃었다. 이후 날마다 나의 눈썹 그리기 연습은 계속되고 있다.

화장품 가게에 들러 새 눈썹 펜슬도 샀는데 깎을 필요 없이 돌려 사용하고 뒤에는 솔도 달린 그 신박함에 감탄했다.

여성 암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유난히 풍성한 속눈썹이 있는 환우가 있어 부러워했더니 속눈썹 연장술을 한 거라며 자신의 작은 기쁨이라고 했다.

항암으로 몸이 너무 힘들 때는 눈에도 안 들어왔던 것들이 보이는 게 이제 살만해졌나 싶다. 일시적으로 잃은 것보다는 그동안 몰랐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재발견함에 감사하며 나의 몸도 마음도 회복 중이다.

Letter 09

난 너를 응원한다

애청자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어느덧 2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입사 동기며 친분이 있는 상사분들도 이제 정년퇴직이 멀지 않아서 회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어느새 퇴직할 때가 다 되었다니 세월이 진짜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 회사는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우리 회사 같은 곳도 없다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지난해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게 느껴졌지만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어 봐도 다들 회사 경기가 안 좋다고 했기에 우리 회사만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애써 불안함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연말을 앞두고 두 달 정도의 긴 감사가 진행됐고 보통 보름 남짓 있는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직원들 모두 감사가 끝난 후 좋지 않



은 상황들이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했는데 그 예상은 적중해서 감사가 끝나고 며칠 뒤 염려했던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분이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고 몇몇 입사 동기와 상사도 퇴사 권유라는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회사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차가웠고 같은 공간에 있기조차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입사 동기도 희망퇴직 권고자 중 한 명이었는데 동기는 그날 이후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진 모습을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입사 동기이자 회사에서 유일한 동갑이라 친구처럼 지냈기에 평소 회사 내 업무 스트레스나 고민, 또래 아이들 키우는 고민, 연로해지시는 부모님 걱정까지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위로랍시고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고 복잡한 마음인 친구에게 어떻게 할 생각이나 물어보

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고만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친구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새벽인데 잠이 안 와서 보낸다. 이 시간에 문자 보내는 걸 이해해 달라. 그리고 이번 회사 상황이나 내 상황에 대해 아내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너이기에 하소연과 조언을 구한다>며 <아이들은 아직 더 뒷바라지해야 하는 나이인 데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외아들이라 내가 더 돌봐드려야 하고 외별이고 아내도 경제적 활동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겨 무척 당황스럽다. 처음에는 왜 내가 희망퇴직 권고자 명단에 들어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르더니 시간이 갈수록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문자로 <세상살이 힘들 때가 있는 거 아니겠니. 나도 언제까지 근무하겠어. 조금 빠름과 늦음의 차이일 뿐이지. 너의 미숙함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기운 차리길 바란다. 언제나 난 너를 응원하겠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친구와 상사분들은 모두 퇴직했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친구가 마지막 근무하던 날, 책상 정리하는 걸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자리를 피했고 그날 저녁 약속을 청할 때도 친구의 눈을 피해 “연락할게”라는 말만 했습니다.

요즘 동료들이 떠난 빈 책상들을 보면 제 마음이 땥 뚫린 것 같아서 보고 있기가 괴롭습니다. 특히 입사 동기였던 친구의 책상 앞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면서 언젠가 나도 이런 날이 오겠지, 그때 난 어떻게 힘든 마음을 이겨낼까 벌써 걱정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퇴직해야 했던 친구와 상사분들이 어서 힘든 마음 추스르길 바랄 뿐입니다.

Letter 10

휴대폰 쥐!

애청자

며느리의 2년 육아 휴직이 끝나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려 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3개월 후에 나 차례가 온다고 합니다. 춘천 친정엄마와 아산 시어머니인 나는 모르는 척하기로 약속했습니다. 60대 후반이니 체력도 달리고 아기 봐 준 공은 없다고 하고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부담되지만 맞벌이하는 애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결국 “걱정하지 마. 내가 아가 볼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수심에 찬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가에게 휴대폰과 TV를 보여 주시잖아요.”

깜짝 놀라서 말했지요.

“내가 휴대폰을 보여줬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아가가 휴대폰 달라고 하면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손자는 휴대폰을 백일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휴대폰을 바라보니 예쁘고 귀여워서 동영상에 담았죠.

아들네 거실에는 며느리가 중고마켓에서 사들인 그네, 미끄럼틀, 자동차, 장난감과 동화책이 많습니다. 손자는 아기 상어 노래가 나오는 장난감을 가지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돌 지나면서 손자는 듣는 것보다 휴대폰 동영상 사이트로 아기 상어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 아기 상어를 보던 아가가 며느리 눈에 딱 걸렸습니다.

“안 돼! 그만 봐!”

며느리는 휴대폰을 야멸차게 빼앗고 아가는 때를 쓰며 울었습니다. 나는 “딱 2번만 보고 할미가 끈다. 약속!”하고는 눈치도 없이 내 휴대폰으로 아기 상어를 보여줬고 눈물이 그렇그런한 채 아기는 웃으면서 “아기 상어 뚜르르~”를 노래하며 좋아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익모초 씹은 얼굴빛이었는데 그 일을 말한 것 같아 “아가 교육에 안 좋은데 내가 보여주겠니? 안 보여줄게. 안심해~” 그렇게 다짐하고 아들 집에 손주를 돌보러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하고 쇠고기국에 밥 말아서 안 먹으려고 하는 아가를 따라다니며 한 숟가락 먹였습니다.

“할미, 휴대폰 줘!”

아가는 내 앞치마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안 돼요. 맘마 먹어야지~”

그러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아기 상어, 엄마 고모 삼촌 상어까지 일가친척을 모두 부르며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아기 상어가 그려진 슬리퍼를 신는다고 고집부리는 아가를 유모차에 태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길에 만나는 야옹이, 멍멍이, 하늘을 날고 있는 비둘기, 참새까지 다 참견하고 어린이집에 도착.

집에 돌아와 폭탄 맞은 것 같은 집을 쓸고 닭고 마트에서 닭 사다가 저녁에 먹을 닭볶음탕도 해 놓고 3시쯤 손자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유모차를 안 타고 건넌다고 하는 아가. 강아지가 지나가면 “멍멍이” 하며 따라가고 야옹이도 부르다가 집에 왔습니다.

목욕하고 간식을 먹은 아가는 “할미, 폰!” 하더니 식탁에 숨겨 놓은 휴대폰을 찾아와 아기 상어를 보여 달랍니다. 나는 동요를 틀고 손자 손이 닿지 않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금영금 기어서 가자~”

악어때 노래가 나오면 손자는 영금영금 기고 할미인 나도 영금영금 기어야 합니다.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노래에 엉덩이도 흔들고 손뼉 치면서 춤추던 아가가 “할미!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라고 합니다.

“할미는 무르팍 아파. 조금만 쉬자.”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 거실에 널브러진 장난감과 동화책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식탁에는 저녁상도 차려놓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고 오면 신창행 전철을 타고 집에 왔다가 일요일 저녁에 광운대행 전철을 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주일쯤 지나자 손주를 돌보고 살림하는 일이 좋았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혼자 집에 있기 싫다며 전철을 타고 아들 집에 왔습니다.

“왜 와? 시아버지까지 오면 며느리가 좋겠어? 휴대폰도 하지 마!”

한 달쯤 되었을 때 춘천 사는 사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활동을 하던 사돈은 일이 끝났다고 손주를 볼 수 있으니 저더러 집에 내려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사돈 고생하세요~” 하고는 짐 싸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손주와 지냈던 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한 달 만에 밀려난 것은 손주가 울면서 휴대폰 달라고 할 때 준 것을 며느리가 눈치챘고 시아버지까지 올라와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 때문인 것 같았어요.

우리 솜씨 좋은 사돈은 고기보다 몸에 좋은 채소로 식탁을 차리고 어린이집에서 온 아가에게 유기농 토마토 주스를 갈아주고, 아가에게

“아멘~” 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TV도 안 보고 휴대폰 동영상도 안 본다더니 동영상 사이트 틀어 찬양 율동도 가르쳐 제게 영상도 보냈습니다. 저러다가 며느리 눈 밖에 날 것 같더군요.

그러길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이 육아 휴직을 했습니다. 사돈은 짐을 싸서 춘천 집으로 갔습니다. 사돈도 아기 돌보는 일에서 나처럼 밀려났습니다. 사돈도 몸은 고달팠지만 손주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육아 휴직한 아들에게 아가 아침밥 꼭 먹고 집 구석구석 청소하고 퇴근한 며느리에게 밥상 차려주라고 했더니 “내가 알아서 잘할게” 하며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잘하고 있나 영상통화를 하니 아들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받고 손주는 TV 틀어 동영상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핑크퐁, 뽀로로, 아기 상어를 눈도 깜박이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아가한테 TV 보여주는 것 알면 좋다고 하겠다. 누워 있지 말고 아가하고 놀아!”

“엄마, 지금까지 청소하고 잠깐 쉬는 중이야!”

주부습진에 걸렸다는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얼마 뒤 육아휴직 끝난 아들이 복직하고 손주 돌볼 이모님도 구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린 손주를 남의 손에 맡기다니 불안해서 남편과 나는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아들 집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손주를 어린이 집에 등·하원시키고 살림도 하다가 저녁에 원룸으로 퇴근하면 우리도 좋고 아들 부부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청량리행 전철을 타고 아들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깨끗한 원룸을 보고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전화도 없이 와서 원룸 계약을 한다고? 절대 안 돼

요!”

“그래그래, 알았어 알았어~” 우리의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돌봄 이모님에게 아가가 돌아다니지 않고 식탁에서 밥 먹으면 좋겠고 휴대폰과 TV는 보여주지 말라고 했대요. 이모님이 노련해서 아기 상어를 본다고 떼쓰던 아가도 달라졌다더군요.

그러다 사돈한테 전화가 왔는데 살던 아파트가 팔려서 딸네 가서 살면서 손주 돌봐주고 살림 해준다고 했더니 그 집 딸인 제 며느리가 거절했답니다. 애들이 복을 찼다고 위로하면서 나는 사돈도 나처럼 손주에게 휴대폰 보여줘서 밀려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돌봄이모님을 잘 따르고 이제는 휴대폰과 TV도 안 보고 동화책과 퍼즐 맞추기만 좋아한다는 손주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주가 말도 잘하고 의젓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서 휴대폰을 하고 나는 미니로 여성시대를 듣는데 손주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할미! 폰 줘!” 하며 내 휴대폰을 낚아챌 때 제가 일부러 며느리 들으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아가, 너는 엄마한테 폰을 달라고 하지, 할미에게 달라고 하니? 할미가 그렇게 만만하니?”

그러자 아가는 “엄마는 안 돼요” 하면서 계속 할미폰을 달라고 졸라요. 얼마나 돌봄이모님보다 내 마음이 독하지 않음을 알고 영특한 아가가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눈을 부릅뜨니까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갑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손주가 글썩 뭐란 줄 아세요?

“할부지! 유튜브 보면 눈알 빠져!”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Letter 11

세 사돈 모임

이은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속골로

저에게는 여섯 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결혼하고 생긴 시부모님 그리고 우리 둘째 동생이 결혼하면서 생긴 동생네 시부모님, 세 집안의 부모님이 모여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죽이 착착 맞은 두 집안 부모님들은 결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베트남 다낭으로 시어머니 환갑여행을 떠났고 이후에도 잦은 모임으로 저보다 더 신나는 큰딸의 결혼생활을 즐기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동생이 결혼하던 날, 결혼식이 끝나고 둘째 동생네 시아버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다음 사돈 모임이 언제냐고 물으셨을 때 느낄 수 있었죠. 사돈 어르신 덕도 '우리 과'구나!

둘째 동생이 결혼한 뒤, 몇 개월 지나기도 전인 2022년 12월 31일에 우리 시골인 강원도 철원에서 대망의 첫 '세 사돈 모임'이 막을 올렸

습니다. 단체복 맞추기를 즐기시는 친정엄마의 추진력으로 세 사돈은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 같은 잠옷을 입고 새해 카운트를 하면서 2023년 달력에 다가오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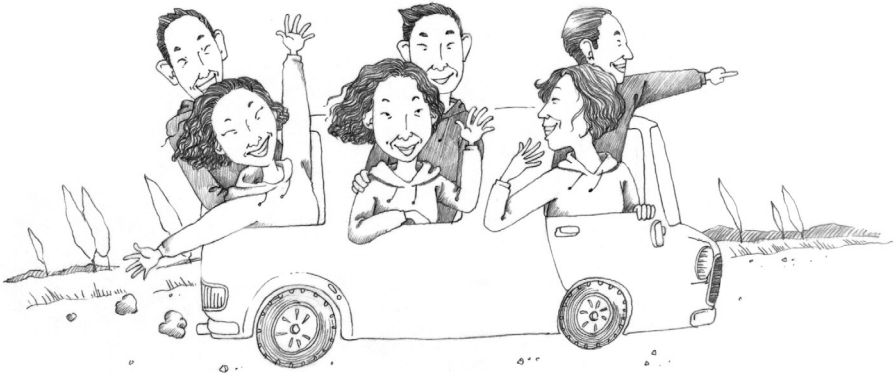
그러다가 우연히 2024년 1월에 둘째 동생의 생일과 둘째 동생의 시어머님의 음력 환갑 날짜가 겹치는 것을 발견했고, 이런 빅 이벤트를 놓칠 수 없는 세 사돈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한 둘째가 총무를 맡아 공동계좌를 개설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세 사돈의 여행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크고 작은 소모임으로 더욱 돈독해진 세 사돈분과 아들 딸들은 인천공항에 모였고 필리핀 세부로 떠났습니다. 단체복 좋아하는 친정엄마의 추진으로 부모님들은 단체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어머니들은 모자까지 예쁘게 맞춰 쓰고 소녀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저희 7살, 5살 두 아들은 '서울 할머니 할아버지, 인천 할머니 할아버지, 원주 할머니 할아버지' 품으로 안겨 다니며 재롱잔치를 열었고, 아들딸들이 준비한 현수막과 케이크로 조출하지만 신나는 생일 파티도 했습니다.

둘째네 시어머님께서는 우리 시어머님께 '며느리와 사이 좋게 오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물으셨고, 우리 시어머님께서는 '고부간의 적당한 거리감'을 주제로 답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은 며느리들은 '지금도 충분한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신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우리 자매를 바라보는 두 분 시아버님은 그저 눈에서 꿀이 툭툭 떨어지셨습니다.

친정 식구 중 유일하게 미혼인 우리 막넛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어떤 사돈을 만나게 될지 하는 기대에 살짝 들뜨신 우리 세 사돈분, 사랑스럽지요?



지난 연말에는 지난 여행을 기념해서 앨범과 2024년 달력을 제작했고 앨범을 나누기 위한 핑계를 만들어 세 사돈과 아들딸들은 고성으로 떠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석인 우리 가족을 위해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더 선물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양희은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더욱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네 시부모님 김주헌 아빠·이옥자 엄마, 시부모님 최진송 아빠·최송자 엄마, 친정 부모님 이창식 아빠·이영숙 엄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요!

Letter 12

학교 청소를 하며

강원자 | 전북 완주군 삼례읍

결 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39년 동안 가사 일만 하다가 다시 사회로 나왔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땐 학교에서 방역 활동을 했다. 그러다 최근 학교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 보고 새로운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심 걱정도 됐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다.

새로운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처음으로 대면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나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그 모든 것이 어색했다. 서로 마주치면 인사를 주고받는다. 금방 보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마주치면 또 인사를 받는다. 재미있다.

나는 남자 화장실 청소하러 갈 때는 꼭 노크하고 문을 여닫는다. 종종 화장실 안에서 휴대폰을 하느라 노크 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많

다. 수레를 끌고 들어가는 소리에 놀란 듯 화장실 안에서 헛기침하는 소리가 난다. “큘… 쿨…” 그러면 나도 같이 화들짝 놀라곤 한다. 헛기침 속 ‘나 여기서 못 나가니 네가 빨리 자리를 비켜줘라’라는 무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재빨리 나와서 다른 화장실에 간다.

어떤 때는 내가 화장실 안에 갇히기도 한다. 내가 청소하고 있음을 알리려고 수레를 화장실 문턱에 걸쳐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급하게 일 보러 화장실에 들어온다. 그럴 땐 하던 일도 멈추고 상대방에게 내가 화장실에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숨을 죽인다. 세제와 솔을 사용해 화장실 변기를 닦는데 그러면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가 민망해하며 일을 볼 때 불편해할까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든다.

이 일을 한 지도 5개월이 지나간다. 내가 일하는 학교는 기숙사도 함께 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바빴으면 세탁기만 돌려놓고 빨래도 못 널고 그냥 갔을까 싶어 건조대를 찾아 빨래를 널어준 적도 많다. 아마 밥 먹으랴,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가꾸랴, 시간을 쪼개 쓰랴 바빴을 것이다. 기숙사 복도엔 중간중간 신발이 나뒹군다. 방문을 열어 짝을 맞춰 놓기도 한다. 이런 사소한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주니까 학생들이 좋아한다.

기숙사 담당 선생님도 내게 잘하고 있다고 엄지척하며 칭찬하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맞나 보다. 나이 많은 나도 선생님께 인정받으니 으쌰으쌰 힘이 난다.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진다.

나는 아들만 둘 키운 엄마다. 그래서 그냥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다. 학생들은 모두 하나같이 어여쁘다. 예쁜 학생들을 바라보는 일은 즐겁다. 애들아, 우리 잘 지내보자.

Letter 13

주황색 바가지

김정옥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오 늘은 일요일 남편과 나 둘이 대청소하는 날이다. 평소처럼 집 안 청소는 남편과 함께 끝내고 화장실 청소는 언제나 내 차지다. 이유는 남편은 물만 뿌리면 화장실 청소가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늘 하던 대로 씻어 나가는데 오늘따라 손잡이가 긴 주황색 바가지가 내 눈에 확연히 들어온다. 어제 사 온 것 같이 색깔 하나 변하지 않은 플라스틱 주황색 바가지. 이 바가지를 30년도 더 전에 산 것이라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늘 아파트에만 살다 보니 햇빛을 본 적 없어서 색이 바라지 않았겠지만 이 바가지를 사야 했던 세월이 청소하는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 막내며느리로 내가 들어오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사까지 내가 다 맡을 줄은 나이 어린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저 위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말없이 따르다 보니 개성 강한 형님들은 세월 따라 한발씩 뒤로 물러서 제사가 공중에 뜨게 되었고 마음 약한 나는 내 일이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올해로 딱 30년. 다리 못 쓰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목욕시켜 드리려 장만한 물건이 이 바가지 외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 이 바가지와 스테인리스스틸 밥통 하나다.

당시 박봉인 남편의 공무원 월급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나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아이 돌과 다리 못 쓰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 차려 드리고 점심으로 스테인리스스틸 그릇에 밥을 떠서 식지 말라고 다시 밥통에 넣어놓고 출근했다. 퇴근해 보면 그 많은 밥이 다 비어 있곤 했는데 연세가 있어 식탐이 많아져 그렇게 드셨겠지 그리 생각해 본다.

1주일에 두어 번 목욕을 시켜 드리는 걸 본 남편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 준비를 할 때 형님들과 형수들 앞에서 말했다.

“이 사람이 엄마에게 정말 잘했어요.”

아직도 그 한마디가 내게는 큰 위안이 되어 내 마음에 남아 있다. 남편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을까. 그동안의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장례식 끝나고 형님들이 내게 옷을 한 벌 사주었다. 그 옷 한 벌에 그동안 형님들에게 섭섭했던 마음도 사라졌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많은 제사를 하나로 합치고 명절 차례와 함께 1년에 세 번 내가 지내기 시작했다. 제사에는 아래 동서가 지내는 게 미안해서인지 오지 않지만 명절 때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시고 우리 아들도 결혼하고 조카도 결혼하니 인원이 점점 많아졌다.

제사 음식은 전날 하는 게 아니라는 주위 사람들 얘기에 밤 12시가

되면 일어나 제사 음식을 하다 보면 새벽 5시가 다 되고 그렇게 준비 끝내고 출근했다가 돌아와 나머지 음식을 차리는 데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피곤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아이들에게라도 복이 오겠거니 그런 마음이 모든 힘들음을 이겨 내게 도와주었다.

그런데 작년 설에 형님이 먼저 “이제 우리도 차례를 없애세~” 하셨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쳐서 작년 추석부터 우리 집에서 명절 차례상이 사라졌다. 1년에 한 번 제사만 지내면 되니 내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TV를 보던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주황색 바가지 있잖아. 어머님 목욕시켜 드릴 때 산 건데 아직 멀쩡해. 어머님 돌아가신 지 30년이나 됐는데...” 했더니 남편이 말했다.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되었네. 그럼 올해까지만 제사 지내고 제사 없애자.”

남편의 뜻밖의 말에 내가 깜짝 놀랐다. 명절 차례상도 형수 한마디에 바로 응수해서 없애고 30년 동안 고생했다며 제사를 올해까지만 지내자는 말이 봉건적인 남편의 입에서 나오다니!

남편 말에 그러겠다고 했지만 무언지 모를 찝찝함도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막내며느리가 최선을 다해 모시려 했던 마음을 조상님들은 헤아려 주시겠지 그런 마음 하나로 올해 마지막 차례는 정성껏 모셔보리라 다짐한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바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이야!

Letter 14

인생 자전거

김영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콩 순이를 닮은 우리 집 꼬마가 콩순이 만화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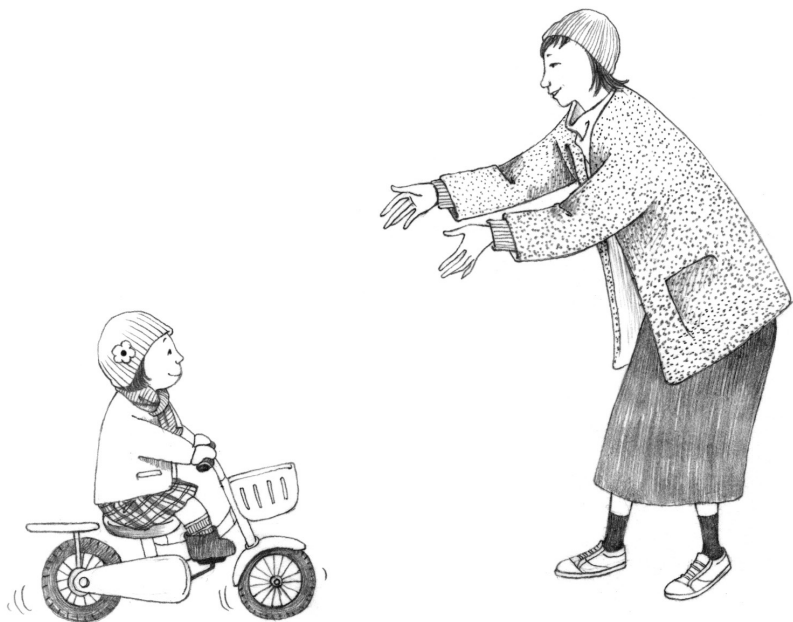
“꼬마야,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할아버지께 무슨 선물 받고 싶어?”

“콩순이처럼 하늘을 나는 자전거.”

“그래. 산타할아버지께 자전거 선물 달라고 편지 쓰자.”

꼬마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산타할아버지께 자전거를 선물 받았어요. 꼬마의 취향을 어떻게 아셨는지 꽃분홍색의 네발자전거였죠. 북극 한파가 와도 눈송이가 날려도 꼬마는 매일매일 놀이터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어요.

처음 자전거를 타는 아이에게 엄마는 이래라저래라 잔소리를 합니다. 초보 라이더가 페달을 몇 바퀴 돌리지 못하고 자전거를 멈출 때마다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해! 계속 달려야 가속도가 생겨서 덜 힘들어.



자꾸 멈추면 다시 시작할 때 더 힘들다고.”

또 초보 라이더가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속도 조절을 잘못해서 넘어질 때 “오르막에는 다리에 힘을 더 주고 힘들어도 계속 페달을 밟고 내리막에는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면 돼.”

또 꼬마가 고개를 떨군 채 페달 밟는 발만 보고 운전할 때는 “앞을 봐야지 땅을 보면 안 돼!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부딪히게 되잖아. 고개를 들어 앞을 봐. 아래를 보면 안 돼.”

목청껏 잔소리를 반복하던 엄마는 문득 지금 하는 말들이 아이보다도 자신이 들어야 할 말처럼 느껴졌어요. 마흔 살에 늦둥이 아이를 낳고 직접 육아하겠다는 마음으로 경력 단절을 택했고 아이는 이제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이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육아의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경단녀로 살아가야 하는 삶 또한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페달을 계속 밟고 나아가야 가속도가 생겨서 자전거 타기가 더 수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경단녀가 된 엄마들은 다시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움직여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멈추면 다시 움직일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전거를 통해 문득 깨닫게 되네요.

또한 인생의 오르막에는 페달 밟을 때 다리의 힘이 더 필요하고 인생의 내리막에는 넘어지지 않게 속도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혹시나 넘어져도 울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인생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앞을 보며 미래를 보며 희망을 보며 나아가야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과 절망을 보며 나아가서는 위험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지금 서 있는 땅에 발을 내딛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싶습니다. 꼬마에게 소리칠 때마다 그 말들은 메아리가 되어 제 마음에 되돌아오네요.

오늘도 살짝 비가 내리는데 꼬마와 함께 놀이터 라이딩을 다녀왔어요. 비가 와도 눈송이가 날려도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여름의 더위가 와도 가을날엔 낙엽을 밟으며 꼬마의 자전거 타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은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아빠가 도와주는 자전거를 타지만 나중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두발자전거를 타는 날이 오겠지요. 언제가 자전거 타기가 익숙해지는 그날이 오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도 즐기며 더 여유롭고 더 즐겁게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마가 선물로 원했던 자전거는 ‘하늘을 나는 자전거’였어요. 우리 꼬마가 인생 자전거를 타고 드넓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면서 씩씩 달리길 소망합니다.

Letter 15

이층 침대가 맺어준 인연

김민정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이 사 가자.” 두 달 전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집은 이십 평 남짓한 곳에 남편과 저, 세 아이들, 친정 엄마까지 여섯 식구가 북다북다 함께 살고 있어서 최대한 버릴 건 버리고 공간 활용을 나름 잘 해도 늘 공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때 남편의 “이사 가자”라는 말이 설레게 다가왔지만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가자니 대출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고 여섯 식구 생활비도 적지 않아서 이사 갈 마음은 결국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살림을 좀 더 촘촘하고 깔끔하게 할 것인가 생각에 빠져 있던 그때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층 침대 갖고 싶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이층 침대? 오 그래~ 이층 침대 좋다!”

이층 침대가 있으면 아이들을 다 침대에 재울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공간에 책상이랑 옷장도 넣을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이층 침대를 폭풍 검색했습니다. 새 상품도 보고 중고 상품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당근마켓에서 디자인도 마음에 쏙 들고 우리 집에 딱 어울릴 것 같은 이층 침대를 발견했어요.

<똑똑, 혹시 이층 침대 구입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그때 저는 당근마켓 이용이 처음이었는데요. 무례한 부탁인지도 모르고 <저 혹시 죄송한데 실물 한 번 보러갈 수 있을까요?>라고 여쭙었어요. 실물을 직접 보고 사이즈도 재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판매자분도 아주 흔쾌히 <네 그러세요! 시간만 맞으면 가능하죠>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보러 갔는데 판매자분들도 가족이 모두 집에 있었고 친절하고 다정한 분들이었어요. 열결에 양쪽 집 식구들이 모두 이층 침대를 둘러서서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이들 나이가 비슷해 보이네요.”

“그러게요. 댁은 어디쯤이세요?”

어른들의 일상적인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동안 양쪽 집 아이들도 한데 어울려 잘 놀았습니다.

“엄마, 이층 침대 정말 좋다! 그리고 여기 언니네 집 진짜 재밌어~.”

우리 집 아이들은 새로 사귄 언니와 이층 침대에 완전히 반한 눈치였고 그 집 아이들도 “또 놀러와~”라며 저희 아이들에게 그림도 그려 주었어요. 그렇게 아주 진귀하고 기분 좋은 만남을 가진 후 집에 돌아오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가족분들 만나서 기분이 좋네요. 아이들 데리고

언제 또 놀러오세요.>

저도 참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 생각했는데 판매자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지요.

침대 옮기는 날짜도 잡고 판매자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침대 옮겨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비용은 어디로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자 판매자님은 <네 옮겨갈 준비 해놓을게요.>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침대를 옮겨오는 날, 기사님들이 아침 8시부터 판매자님 댁에 가서 침대 해체 작업을 하고 우리 집으로 옮겨와 2시간가량 재조립을 다 끝냈을 무렵 판매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똑똑똑~ 침대는 잘 도착했나요? 저희 침대가 너무 이쁜 가정으로 간 것 같아 감사해요. 그래서 침대 비용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비용을 입금하겠다는 말 씀드려도 별다른 답변이 없더니 집으로 찾아갔던 날, 저희 가족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이다' 생각했다며 '이 침대가 가야할 집에 가는구나' 싶었대요. 그래서 끝내 침대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고도 믿겨지지 않아 지금도 얼떨떨한데요. 판매자님의 베푸는 태도를 보며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은 매일 밤 사랑스러운 이층 침대에서 세 아이들이 포근하게 잠들고요. 침대를 옮겨온 후 한 달쯤 됐던 지난 주말엔 판매자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답니다. 참 좋은 사람들. 가까이 지내며 그분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싶어요. 앞으로 오래도록 좋은 인연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달의 손편지

친모와 계모 사이

김경득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사건은 아들이 제대하면서였다. 1년동안 공들인
타이 요르르 무너졌다.

화장실 청소로 다투다가 남편에게 앉아서 소변을
보게끔 약속했고 잘 지켜졌다.

그런데 아들이 제대하면서 부자시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생겼다.

아들은 불일 본 후 샤워기로 뒷정리를 잘한다 했다.
남편도 덩달아 앉아서 불일 보던 거를 떨쳐버리고
세면 물을 본 후 당당하게 청소했다고 했다.

내 눈에만 이상하게 보이는 두 남자의 흔적들...

언제부터인가 주방에 있다가도 화장실 들어가는

소리만 나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살피러 간다.
그러다가 딱 걸렸다. 남편이었다. 불일 본 후
후딱 나오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범인을
잡았네!"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낸다.
"이번이 처음이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꼭 계모같아!"
"헉! 뭐라고? 계모?"
"아들한테는 말도 이쁘고 부드럽게 하면서
나한테만 툭툭 내뱉는다."고 했다.
"불일 보는 것도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하고
나한테만 한다."고 ...

“울 엄마한테 다 얘기한다.”는 것이 었다.
오히려... 그럼만 말이지... “그렇게 하소... 그렇게 꼭
하시고 엄마한테 꼭 이르라.” 했었다.
그리고 나서 계모가 대체 뭘까? 찾아보니
'엄마를 잇는다'는 뜻이엿다. 참 좋은
단어엿다. 엄마를 잇는다.
그런데 왜 유독 '계모'라 하면 무섭고
아프고 추운 느낌일까? 아마도 대중매체나
전해 오는 얘기들이 계모를 안 좋게만
평가해서 일거다.
“석가모니 엄마도 계모엿는데... 엄청 좋았는데...”

암튼 신변 때문에 얻은 '계연'라는 무거운
때문에 지금도 친연과 계연 사이에서 난 요즘도
많은 생각을 한다. 집안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두들겨 받는다.
나보다 더 큰 남자들! 나 착하고 좋은 여자이고
실의니까 제발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요...
안 그럼 확! 벌금 물라는 수가 있대요...
여성시대에서 마음이 뒤숭숭한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 이상한 거 아니죠? 이제는 솔직히 임마는
그만하고 싶소. 사직서를 작성 중입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1900]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6730] 둘째 아이를 위해 만든 스웨터입니다. 수요일 수라클 인증합니다.



[0290] 여성시대 왕 애청자이신 광양 사는 속희 언니가 바리바리 싸서 보낸 보따리입니다. 여성시대 책을 구할 수 없는 저에게 이렇게 지난 월간 여성시대를 모아서 보내주시네요. 언니 감사합니다.



[6160] 2월호 책자 받아왔습니다.



[2069] 딸기 포장 중이에요. 우리 딸기 많이들 드세요~.



[0704] 오늘 나와 의약식 그동안 미루었던 플로깅! 초등 딸과 같이 학원 끝나고 동네 한 바퀴 돌며 주웠는데 쓰레기 봉지가 꽉 찼네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전북 군산시 개북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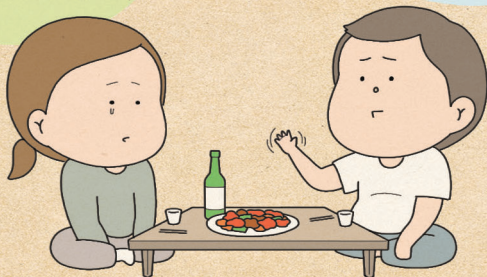
여성시대 가족 당당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실까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

내가 그 마음 알아.
나도 장모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었어.



처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처제를 영 마뜩잖아 하시는 눈치라
안타까운 마음에 성심성의껏 위로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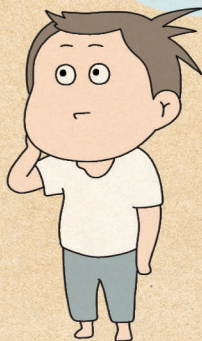
다음 날 눈을 떠 보니



정서방
밥 먹고 가게.

북엇국
끓여놔어.

갑자기 왜...!?



어제 미정이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네.
나 땀에 많이
힘들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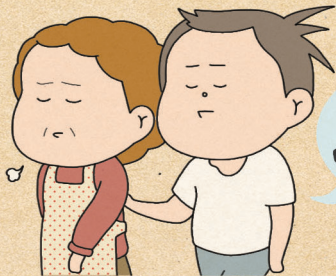
내 딸이 막상 이렇게 되니
내가 참 마음이 아픈네.
그땐 정말 미안했어.



어제 처제와 나눈 이야기를 살짝 들으신 장모님은
제게 사과를 하셨지요.

속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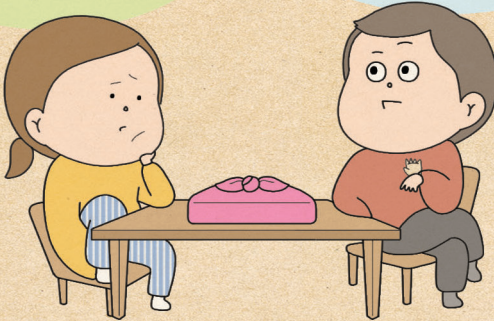
에이 장모님도 참
마음 쓰지 마세요~



여칠 후

오늘은 남자친구 어머님이
떡을 좋아하신대서 사 왔는데,
떡 안 좋아하신다면
돌려주시더라고요.

힘내 처제. 나는 더 했어.
기억 안 나? 나 문전 박대하고
신발 던지셨잖아.



다음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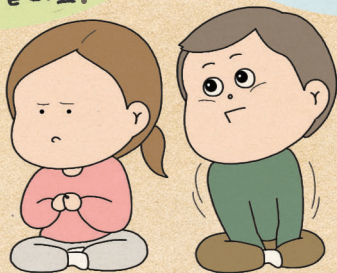
아니 정서방
내가 언제 신발을 또 던졌어.
내가 살면서 다 갚을 테니
그만 잊자 우리.



그 얘길 들은 장모님은 또 사과.
그 이후로도 본인의 아니게 사과 퍼레이드는 계속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바람맞았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던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못 나가게
막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장모님은 언니인 척
나한테 문자 보내셨었잖아.



아니 정서바양
언제까지 할 거야.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혼난다!



절 그렇게나 싫어하시던 장모님과
이제는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로 이어 온 50년 전통기업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거래고객

라이프환경기계(주) 김종건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라이프환경기계(주)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선진화된 환경 개선 제품들을 수입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내 환경기계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최고의 제품을 발굴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AS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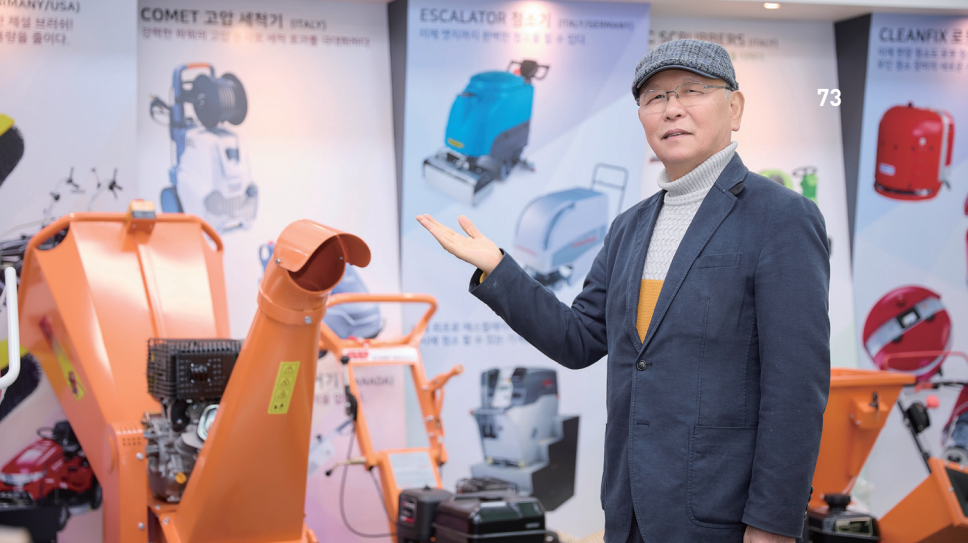
쌓아온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라이프환경기계는 청소용 장비들을 선진화된 미국 및 유럽에서 직수입하여 각 기업체에 공급하는 환경기계 관련 기업이다.

기계를 활용한 청소가 흔치 않던 시절인 1978년, 김종건 대표는 선견지명으로 라이프환경기계를 설립하였고 청소용 장비들을 직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였다. 현재 라이프환경기계는 산업용 청소 장비의 선두주자로 100여 평의 상품 전시장과

300여 평의 물류센터, 80여 평의 부품실, 40여 평의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품 판매, PR, 생산, 물류, AS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여 국내 작업 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라이프환경기계의 첫 아이템은 고압세척기였다. 손 세차가 일반적이었던 80년대 초반 덴마크에서 수입해 국내 최초로 세차장에 고압세척기를 공급하였고 독점이다 보니 판



매량이 무척 많았다. 하지만 야외에서 사용하는 데다 관리·보관이 잘되지 않다 보니 겨울에는 기계 안의 물이 얼어버렸고 기계가 고장 나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기도 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 AS를 해주고 제품 관리 설명을 했지만 컴플레인도 계속되었고 이후 눈을 돌려 기업체 납품을 시작했다. 이후 제설 장비, 에스컬레이터 청소기, 고무 제거제, 탑승식 청소차, 카펫 청소기 등 다양한 청소제품을 직수입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40여 년이 넘게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50여 년 가까이 기업을 이끌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수입 제품을 취

급하다 보니 미리 제품을 구입해 창고에 쌓아놓고 고객이 원할 때 출하하기 때문에 자금 회전 기간이 무척 길다. 그뿐만 아니라 AS용 부품도 갖춰고 있어야 하므로 자본 축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슈는 환율이다. 100% 수입업체다 보니 환율 변동이 심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특히 IMF가 터졌던 1998년에는 환율 급등으로 인해 일부 수입업체가 거의 다 문을 닫았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라이프환경기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선진 제품을 발굴하고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현장에 꼭 맞는 맞춤형 제품을 공급



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

“기계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AS가 많 지 않던 시절, 고객의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 AS를 하려고 노력했 습니다. 라이프환경기계는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사 후 관리도 철저히 하여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와이어리스 기계가 대세 가 되면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국 의 Trojan과 계약해 배터리를 직수입 하여 공급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세제로 유명한 독일 TANA와 계약하 여 친환경세제 및 손 세정제를 수입 하여 가정용뿐 아니라 산업용으로 도 판매하고 있다. 자연에서 추출한 친환경 물질로 세제를 만들기 때문 에 강산성 세제가 손에 닿아도 유해 하지 않고 냄새를 맡아도 역하지 않 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건강을 지 켜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 에서 사용해도 좋다.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백미 자 지점장은 “창업 이후 사업자 통장 을 개설하면서 인연을 맺은 라이프환



경기계는 지금까지 모든 외환 거래를 IBK기업은행과 함께하고 있다”며 “최고 품질의 제품 공급과 고객 감동 서비스 실현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라이프환경기계가 B2B뿐 아니라 B2C 상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백미자 지점장(왼쪽)과 라이프환경기계(주) 김종건 대표

! 라이프환경기계(주) 김종건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과욕을 부리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업을 확장하라.
2. 기업의 부채를 최소화하라.
3. 충분한 경험을 통해 배워라.

라이프환경기계(주)

대 표 김종건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16번길 25-32 SK V1센터 305호
 전 화 1600-0899 홈페이지 <http://www.life21c.co.kr>



자연에서 발굴한 원료로 건강한 미래를 추구하다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거래고객

(주)프롬바이오 심태진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프롬바이오는 안전한 원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과대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건강한 미래를 추구한다.

프롬바이오는 신소재 발굴 및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헬스케어 기업이다. 심태진 대표는 2006년 진용내 추렐을 설립하여 B2B로 원료 공급을 주로 하였으나 2015년 프롬바이오로 상호를 변경하여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성장하였다.

프롬바이오의 대표적인 제품은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로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무릎이 좋지 않은 심

대표가 직접 해외에서 원료를 발굴하여 개발한 관절 건강기능식품이다. 보스웰리아는 관절 건강에 효과가 있는 주요 성분을 포함한 나무에서 채취한 유향을 일컫는 말로 프롬바이오에서 발굴하기 전에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원료였다. 그러나 프롬바이오가 발굴하여 관절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잘 알려졌고 현재는 보스웰리아를 원료로 한 관절건강식품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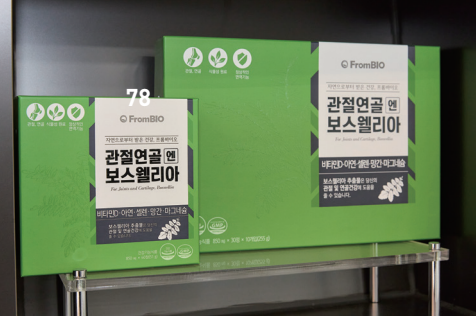
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프롬바이오의 ‘관절연골엔 보스 웰리아’가 국내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밖에도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를 활용한 ‘위건강엔 매스틱’, ‘프롬바이오 아프리카망고’, ‘관절엔 크릴오일’, ‘디어퀸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뷰티, 생활용품 등을 출시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처음 B2B를 통해 원료 판매를 주로 하였고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면서 B2C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했는데 운 좋게 홈쇼핑을 하게 되면서 회사가 많이 성

장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로 홈쇼핑 및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처음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했을 때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당시 미국과 일본 시장을 보고 미래에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오히려 일본에 역수출할 만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발전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 중심에는 15년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프롬바이오가 있다. 프롬바이오가 제품



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식품 연구소와 바이오 연구소, 의약 연구소를 운영하고 GMP 공장을 보유하여 원료의 탐색, 개발부터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까지 모두 소화하며 독자적인 원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식품 원료의 특성상 원료의 유통기한이 짧아 폐기하는 일이 잦고 연구 개발 등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아 자금

이 부족한 일도 많았다. 특히 처음 보스웰리아 제품을 개발하기 전 자금이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적이 있었는데 당시 관절, 위, 체지방 다이어트 제품의 원료를 동시에 개별 인정 받으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직원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2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매출도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는 1,0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죠. 최근 2년 간 경쟁



사들의 추격으로 약간 미진하긴 했지만 현재 연구 중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및 신약 개발을 통해 올해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우삼명 지점장은 “프롬바이오는 대표님의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와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며 국내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성장하였다”며 “프롬바이오가 힘들 때 비 오는 날 우산처럼 적절히 보조하고 지원하여 서로 윈윈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프롬바이오 심태진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우삼명 지점장

! (주)프롬바이오 심태진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라.
2.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아라.
3. 새로운 원료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검증을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하라.

(주)프롬바이오

대 표 심태진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127번길 10, FB tower
 전 화 031-895-5252 홈페이지 <https://frombio-company.co.kr>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 81 첫연애 첫사랑
- 85 뒤늦은 후회
- 87 세 번의 연애
- 91 비밀 연애
- 93 사랑의 물리학
- 97 후파람 그 오빠

이 사람이 버는 세상

- 100 웹디자이너의 세계
- 102 기술은 든든한 언덕
- 104 배와 함께 30년
- 106 남편에게 배운 페인트칠
- 108 개인용달 사업



사랑 사랑 사랑

첫 연애 첫사랑

조현아 | 대전광역시 중구

저희는 7년 차 장기 연애 커플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연하예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났던 건 대학교 2학년 때 동아리 방에서였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동아리방 안은 소란스러웠고 그 틈에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그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영화 동아리방 맞나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장난기 넘치는 미소, 영화배우 천정명을 닮은 얼굴, 신입생의 풋풋함이 묻은 초롱초롱한 그 눈이 제 쪽을 향하더니 곧 눈알이 튀어나올 듯 동그래졌습니다. 그렇게 1분 정도 지났을까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서둘러 자리를 피하던 그.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제게 반했던 순간이요. 그 후로 남자친구는 1년 동안 절 따라다니며 열렬한 구애를 펼쳤어요.

“누나~ 나랑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뭐해요? 일없으면 나랑 영화 보러 안 갈래요?”

“아까 보니까 계속 기침하던데 약 사왔으니까 자기 전에 꼭 챙겨 먹어요~.”

제가 아프거나 힘들 때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남자친구는 전담 매니저처럼 밤낮으로 저를 돌봐주었죠.

하지만 모태 솔로에 그야말로 속매이었던 저는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이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그저 귀여운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죠. 그러다 조금씩 남자친구의 애정 공세에 점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옆에 없으면 나 큰일 나겠다.’

사실 전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도 사귀어 본 적도 없던 터라 많이 두려웠어요. 남자친구도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이런 제안을 건네오더라고요.

“누나, 하루만 내 여자친구 해볼래?”

그렇게 저희는 유효기간 ‘하루’짜리 커플이 되어 당일치기로 전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루짜리 연인의 유효기간이 연장됐다는 것.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때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저 누나 좋아해요. 진짜 내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처음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의 마음을 거절했어요.

“미안해. 네 마음 받아주기 힘들 것 같아.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은 금방 없어질 거야. 남자로 다가오지 말고 지금처럼 내 옆에 있어 주면 안 될까? 친구로 동생으로 말이야.”

“누나, 그건 너무 욕심이에요. 지금 누나가 나 거절하면 난 누나 다

신 안 볼 거예요.”

쿵쿵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를 다시 못 볼 생각을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아, 나도 그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그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첫 연애 첫사랑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옷깃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두근~ 눈에선 스파크가 찌르르르~ 모든 것이 풋풋하고 설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기만 해서 탈이 났을까요? 마음에 꽃이 피던 연애 초반 그 황홀함도 잠시! 남자친구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해왔어요.

“나, 통지서 나왔어. 곧 군대가.”

사견 지 100일도 안 돼서 군대라니! 매일 보고 싶고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이 시기에 군대에 간다니요. 다른 사람들은 곰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남자친구가 입대하기 전날 남자친구 고향인 공주에 가서 깜짝 이벤트도 해주고 남자친구가 입대한 후로는 선임들에게 남자친구 잘 부탁한다며 과자를 잔뜩 사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곰신 카페에 가입해 여러 곰신 친구를 만나 위로받으며 그 길고 긴 시간을 버텼네요.

남자친구가 제대하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7년. 똑배기 같은 사랑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하고 싶단 게 제 바람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소원을 이뤄줬네요. 더욱 고마운 건 남자친구, 아니 신랑 또한 제가 첫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된 우리.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이제는 정말 서로 하나가 되어 ‘부부’라는 이름표를 달게 됐네요.

‘부부’라는 것은 서로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

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희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단점을 꾸짖기보다 예쁜 말로 “이런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따로 나누지 않아도 저는 설거지, 신랑은 빨래를 담당해요. 서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척척인 우리.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저희는 성격도 성향도 정반대입니다. MBTI가 ENFP인 저와 달리 신랑은 ISTJ거든요. 네 개의 알파벳 중 하나도 맞는 게 없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헤어져”를 외치며 대판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부부간에 ‘갑’이 어딴고 ‘을’이 어딴겠습니까? 내가 ‘갑’하고 싶을 때는 너는 ‘을’을 해주고, 내가 ‘갑’하고 싶을 때는 내가 ‘을’을 자처하며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사랑해 주고 있어요. 소중한 사랑을 알게 해준 우리 사랑하는 신랑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네요.

신랑아! 스무 살 때 처음 봤던 귀여운 모습은 어디 갔을까? 지금은 든든한 남자가 다 되었는데. 부족한 내 옆에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줘서 고마워. 넌 내게 참 과분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마음 써준 것도 고마워. 그동안 장사하느라 여행 한 번 못 해보신 우리 아빠 엄마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잖아. 그때 엄마가 그러는데 비행기 타면서 눈물 났다 하시더라. 얼마 전 아빠 백내장 수술할 때도 보호자를 자처하며 간병해 주고 든든하게 나와 우리 엄마 아빠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요즘 너와 똑 닮은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도 언젠가 예쁜 아가가 꼭 찾아오겠지? 너무 조금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자. 신랑~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

사랑 사랑 사랑

뒤늦은 후회

애청자

안녕, 내 사랑 잘 지냈어요?

내 평생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당신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혼자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던 어느 날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났죠. 처음 가본 낯선 길에 당신이 서 있었어요. 당신이 내게 베푼 호의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저도 처음부터 당신에게 반하진 않았어요. 입양한 리트리버를 데리고 처음 계양산을 올랐던 그날, 당신은 길을 모르는 저와 함께 걸어주었죠. 그 순간 그때의 장면이 잊히질 않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노래 가사처럼 계속 당신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났던 그곳에 다시 찾아가 보았는데 운명처럼 당신이 내 앞에 서 있었죠.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랑이 시작됐구나!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던데 기적은 한순간의 장난이었을까요. 기적처럼 당신이 내 고백을 받아주어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지만 매일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죠. 늘 나만 기다리고 나만 외로운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속상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사랑, 내가 더 아프고 힘들어하는 게 맞을까요? 당신은 다 지나간 사랑이라고 했지만 내 눈엔 당신이 옛사랑을 아직 잊지 못한 것 같아 보여요. 10년간 당신 옆에 있다가 병 때문에 먼저 떠난 그녀를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당신, 이제 그만 그 사랑은 놓아주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우리 잘 만나보면 안 될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사랑이 당신의 사랑보다 더 클 뿐이겠죠. 나는 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당신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요.

어른들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덜컥 겁부터 나요.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당신을 볼 때면 늘 불안해요. 내 눈에만 당신이 빛나 보이는 게 아닐 텐데 더는 당신을 사랑하기 힘들어서 내가 먼저 이별을 고했지만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어보려 한 적이 없어요. 매일 매 순간 당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합니다.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던 계양산을 오르고 있을까요? 밥은 먹고 다녀야 할 텐데. 표현이 서툰 당신을 내가 조금 더 이해해 줄걸, 당신의 자존심을 내가 마음 넓게 받아줄 걸 뒤늦게 후회가 되네요. 이 사연을 듣는다면 내게 연락해 줘요.

당신이 말없이 안아준다면 나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 아닐까요?

사랑 사랑 사랑

세 번의 연애

애청자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총 세 번의 연애를 했다.

첫 번째 연애는 스무 살 때 멋모르고 한 사람만 걸리라는 식으로 아무에게나 대시하다가 같은 과 최고의 쿤카와 사귀었다. 그야말로 피 끓는 청춘이라 그녀와 사귀는 동안에도 나는 소개팅이며 미팅이며 되지도 않는 헌팅까지 가리지 않고 해댔다. 이건 내 추측인데 그녀 역시 클럽을 좋아해서 나 말고도 여러 남자를 만났으리라. 일부러 확인은 하지 않았다. 의심하고 캐묻는 순간 나 역시 구속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녀와는 사랑도 뭇도 아닌 관계를 1년간 유지하다가 합의 하에 헤어졌다. 그러나 웃기게도 그녀와의 이별은 무척이나 슬프고 힘들었다.

이별의 아픔을 딛고 나의 두 번째 연애는 연합동아리에서 한 여학생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녀 역시 미모가 출중해 동아리 내에



서 인기가 많았지만 호들갑을 떨지 않고 천천히 스며들듯 다가간 내가 그녀를 쟁취할 수 있었다. 난 그 당시에 그녀를 정말 좋아했고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했다. 그녀와는 정말 재미있는 연애를 했다. 물론 내 생각일 뿐이지만... 나에게 모든 걸 맞춰준 그녀와는 항상 정적인 데이트만 했다. 여행도 소풍도 맛집 탐방도 전부 귀찮아했던 내게 맞춰서 우리는 대학교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자취방에서 영화를 보고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읽는 식의 데이트를 했다. 결국 그녀가 해달라는 것 하고 싶다는 것은 하나도 해주지 못했다.

그녀와 만났던 3년 동안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한 적이 있는데 항상 그녀가 나를 보러 왔었다. 그때 나는 내가 못되고 이기적이었던 걸 몰랐다. 끝에 질투는 많아서 그녀가 회사에 입사하고 직장 동료들이 집적대는 걸 못 참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던 중 작은 의심이 돌이

킬 수 없는 오해로 커져서 결국 내가 먼저 그녀에게 이별을 고했다. 오해를 풀고 싶었던 그녀는 헤어진 뒤로도 수차례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녀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사한 주소로 힘들게 물어물어 찾아온 그녀에게 지겹고 질린다는 모진 말을 내뱉고 말았다. 나의 일방적인 오해로 인해 이별을 통보받은 그녀는 오랜 시간 힘들어하다가 꽤 좋은 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지인들에게 건너 건너서 이야기를 들었다.

훗날 나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먼저 이별을 고했던 입장으로써 마음 아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난 배신당한 거라고 최면을 걸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프지 않은 척 애썼다.

그리고 나의 세 번째 연애는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대학교에 복학한 바로 직후였다. 다른 과였던 그녀는 처음부터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와 나 사이에 운명의 끈이 얽혀 있는 것처럼 우연히 마주치는 일들이 많았다. 알고 지낸 지 4개월 만에 썸을 탔고 나의 구애와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데이트 취향도 완전히 다르고 식성도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가 너무 좋아서 그녀에게 모든 걸 맞추었다. 깜짝 이벤트도 준비하고 달달하고 오글거리는 멘트도 매일매일 했다. 두 번째 연애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연하였고 나는 그녀의 20대 초반과 중반을 모두 보았다. 그녀와 함께한 날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학생에서 어른이 되었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다. 모든 걸 함께 공유하던 학생 때와는 달리 생활 패턴도 생각도 모두 달라졌다.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변화였지만 나는 전에 없던 막

연한 이질감을 느꼈다. 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가 차였다. 이별을 고하며 몹시 미안해하던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진심이었기에 그녀를 감히 붙잡지 못했다.

그녀와 헤어진 후로 몇 달을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다.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다. 얼마 없는 나의 연애사 중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가슴 아픈 경험이자 긴 여운을 남긴 사람과의 세 번째 연애가 끝이 났다.

몇 번의 헤어짐과 만남을 겪으면서 나는 성격도 변했고 연애관도 가치관도 모두 변했다. 처음은 바람둥이로 두 번째는 이기적인 남자로 세 번째는 로맨틱한 순정남으로 각각 다른 나로 연애하면서 나의 20대를 모두 보냈다.

사실 아직 못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너무 힘들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 속에 묻어야 할 것 같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위로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요새는 노래를 거의 안 듣는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상념이 들어서 복잡하고 괴로워지기 때문인데 얼마 전 이상은의 ‘언젠가는’이라는 노래를 들으니 다시 수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옛사랑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지나간다. 나의 젊음을 함께해 주고 사랑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준 사람들. 정말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자. 헤어진 모습 지금 이대로!

사랑 사랑 사랑

비밀 연애

애청자

저는 현재 비밀 연애 중입니다. 그것도 여동생의 남자 사람 친구와 여동생 몰래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성격이 좀 털털한 편이거든요. 평소에 '여장군'이란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동생 친구도 절 무서워하더라고요. 동생 친구에게 제가 먼저 반 험박으로 밥 먹자, 술 마시자며 다가갔고 서로 정이 들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연애 초반이라 남자친구에게 제 성격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제 평소 성격을 보여주면 남자친구가 절 안 좋게 볼까 봐 걱정됩니다. 도대체 성격이 어떻기에 그러냐고요? 제 동생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너 성질 굉장하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형부 될 사람이야. 이 마귀할멈아!”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엄마도요.

“아이고, 진짜 넌 너무 독해서 문제야. 누가 널 데리고 가겠니?”

저런 말을 들으니 저도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격을 조금만 죽여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이 제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 식탁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바닥에 벌레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가녀린 모습을 남자친구에게 어필할 기회가 찾아왔단 생각에 이때다 싶어서 얼른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벌레!”

“무슨 소리야. 벌레 하면 누나 전공이잖아. 아주 밟아서 으깨 놓으면서 웬 내숭?”

아, 저 눈치 없는 자식.

집에 간다는 남자친구를 데려다주는 길, 근처에 포장마차가 있기에 간단하게 술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누나, 산낙지 시킬까?”

“싫엉~ 산낙지 징그러워서 싫엉~”

“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낙지 없으면 못 산다고 해놓고...”

“아냐. 나 산낙지 못 먹어. 네가 좋아하니까 먹었던 거지. 너무 징그럽단 말이야.”

“누나, 난 누나의 여장군 같은 성격이 좋아. 자꾸 다른 사람처럼 그러지 마. 이상하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남자친구는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파악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남자친구에게 제 성격을 다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원래 제 성격이 좋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동생이 알면 얼마나 놀랄지 두렵네요. 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라고 악담할 게 뻔한데 동생에게 저희가 사귄다는 걸 말해도 괜찮을까요?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물리학

이원균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책장 속 투박한 노트 하나, 오늘도 펼쳐볼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시선을 거둡니다. 자꾸만 마음이 가는 저 노트는 그녀와 제가 필담을 나누던 노트입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것은 98년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었던 물리 시간이었습니다. 중간고사를 보는 날이라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사실 그녀는 계속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돌돌 말아 올린 그녀, 하얗고 긴 목덜미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뒤를 돌아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그녀의 옆모습을 보고 전 반해버렸습니다. 시험 시간 내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물리 공식보다 더 복잡한 연애 공식을 만들어냈지요.

‘그녀보다 더 빨리 나가야 돼. 나가서 기다렸다가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시험지에 답을 대충 적어놓고 1등으로 강의실을 나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다 돼서야 그녀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편이라고 말을 걸지? 안녕? 시험 잘 봤니? 아, 어찌지!’

마음만 조급해져서 안절부절... 그런 저에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물리 잘해? 제일 먼저 나가더라. 난 한 개도 몰라서 지금 나오는 거야. 너 연락처 좀 알려줘~. 우리 친구 하자.”

그때 당시만 해도 남들 다 있는 뽀빠가 전 없어서 그녀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다시 기말고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혼자 마음만 졸이다간 답살 동기 커플들 속에서 쓰디쓴 소주만 마시게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조급해지더군요. 연락해야 돼. 이대로는 안 돼. 핑곗거리를 찾다가 시험 범위를 물어본다는 구실로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녀의 뽀빠에 음성을 남겼습니다.

“나 원균인데 기억하려나? 내일 물리 시험 준비하는데 시험 범위를 잘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혹시 알고 있으면 답장 줘.”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지만 시험 당일 아침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과 물리학 공부로 가득차 그녀에게로 가는 관성의 법칙, 그녀에게로 향하는 중력 가속도의 법칙 등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가 앉으니 뒤늦게 들어온 그녀가 제 뒷자리에 앉더군요. 시험은 시작되었고 고등학생도 풀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낸 것뿐이라 물리를 좋아하는 저한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연애도 이렇게 쉽게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를 다 풀고 숨을 돌리는데 가녀린 손가락이 제 등을 쿡 찌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뒷자리에 앉은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몰래 내
 민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1번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려줄 수 있어?>

두근두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
 을 적어서 그녀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쪽지가 한 장 더
 날아왔습니다.

<나 사실 전부 다 몰라>

그녀가 물리를 못 하는 게 무슨 문제일까요. 나머지 문제들도 답을
 적어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하고 개선장군처럼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온 그녀를 붙잡고 물었죠.

“내가 어제 음성 남겼는데 못 들었어?”

“아! 그게 너였구나. 회신번호가 02번이길래 추근대는 선배 같아서 확인 안 했어.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밥 살게. 점심 같이 먹자.”

그렇게 그녀와 점심을 먹고 집 전화번호까지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매일 전화를 주고받다가 그녀에게 고백할 타이밍을 잡기 위해 제 생일을 핑계로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생일 파티가 열리는 술집까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와준 그녀. 술에 취한 친구들을 내버려두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술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막차 버스를 타기엔 빠듯한 시간이었기에 걸음을 빨리하며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드럽고 터질 것 같은 ‘말랑말랑한 복숭아’ 같은 그녀의 손이 느껴졌어요. 그녀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이거 나랑 사귀자고 생각해도 돼?” 라고 말하더군요.

“어? 어!”

그렇게 우리는 1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웠던 나의 첫사랑.

그녀는 지금 제 곁에 없지만 그녀를 데려다주었던 그녀와 같이 걸었던 신림동. 그곳을 경유하는 651번 버스를 운행하다가 여성시대 ‘사랑, 사랑, 사랑’ 코너를 듣고 그녀를 추억해 봅니다.

첫사랑아 잘 지내지? 너와 같이 갔던 식당은 신림동 순대타운 4층에서 3층 310호로 옮겼지만 아직도 그때 이모님 그대로 계신다. 우연히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651번 버스를 운행하다가 신림사거리와 너희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너를 추억할게. 그때 그 시절 정말 고마웠다!

사랑 사랑 사랑

휘파람 그 오빠

김진주 | 경남 진주시

‘옛날의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이 노래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러주던 그 사람.

참 오래전의 일이다. 행복했던 여고 시절 그는 우리 집 아래채에 세들어 사는 사람의 남동생이었다. 그의 매형은 나이가 많았는데 10살 쯤 되는 아들이 있었고 그의 누나는 옛된 얼굴을 하고서 임신한 배를 잔뜩 내밀고 다녔다. 엄마는 이들을 보고 애 딸린 남자가 어린 여자와 재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녔고 방학 때가 되면 이곳으로 내려와 작은누나네 집에서 생활했다. 그런 그를 보며 난 ‘누나 집이 답답하지도 않나? 어디 다른 데 가 있지’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

그를 반기지 않았던 나와 달리 그는 내게 늘 친절했고 나와 이야기

하기를 좋아했다. 나보다 세 살 정도 나이가 많은 그는 나를 어린이 취급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다지 좋은 대학에 다니지도 않건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닌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그가 우스워서 괜히 품잡는 그가 싫어서 나는 괜히 한 마디씩 툭 쏘았다. 그가 누나네 집에 얹혀사는 것만 봐도 그의 삶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는 서울 이야기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 같아서 나는 한편으로 못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오랜 시간 한집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와 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날이 좋은 날에는 그와 함께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너 좋아하는 노래 다 말해 봐. 내가 휘파람으로 불러줄게.”

“진짜? 정말로 다 불러줄 수 있어?”

메기의 추억, 사월의 노래, 비목, 목련화, 과수원길 등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말하면 그는 입으로 노래를 연주해 주었다.

“와~ 어떻게 휘파람을 그렇게 잘 불러요?”

“혼자 연습하니까 되던데. 너도 한번 불러볼래?”

“난 잘 못 불러요.”

“입을 오므리고 노래 부르듯이 불러 봐. 이렇게 후후후~”

그는 내가 휘파람 소리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집에서도 종종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었다.

엄마는 그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어우 시끄러워! 재는 시끄럽게 계속 휘파람을 불고 난리니?”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좋았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계절이 지나고 방학이 끝날 무렵 그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그사이에 난 그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보고 싶었지만 괜찮았다. 그의 누나가 우리 집에 사는 동안 그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방학이면 그를 만났고 또다시 방학을 기다렸다.

세월이 흐르고 그의 누나를 통해 그가 서울에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더 이상 이곳에 내려오지 않을 거라 했다.

난 그래도 한 번쯤 그가 오리라 믿었다. 가끔 오빠인 듯 연인인 듯 친구처럼 그가 내게 편지를 보내왔으니까.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의 누나도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선 작은 집을 전세로 얻어 이사를 간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누나가 이사를 할 때 갑자기 그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예전보다 훨씬 잘생기고 멋있어진 모습으로. 난 이상하게 또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는 아주 덤덤해 보였다.

“누나 집에 오면 항상 심심했는데 여동생 같은 네가 있어서 좋았어. 고마워. 앞으로 잘 지내.”

정말 여동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듯 무심히 인사만 건네고 떠난 그 사람.

난 그에게 여동생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가 여동생이란 말만 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 난 지금도 ‘여동생’이란 말을 싫어한다.

소식적 풋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나만의 짝사랑이지만 어디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난 아직도 그가 떠오른다.

휘파람을 잘 부는 그 남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도 나처럼 잘살고 있겠지.

이 사람이 버는 세상

웹디자이너의 세계

하은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저는 웹디자이너입니다. 웹디자이너를 멋있는 직업이라고도 하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분들은 편하게 일하는 직업이라고도 하세요. 물론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건 맞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물류 팀이나 직접 공장을 돌리는 분들은 더 힘드시니까요.

그런데 웹디자이너도 편안한 직업은 아닙니다. 신상품 디자인도 해야 하고 신상품이 나오면 상세 설명서를 하나하나 만들어 사이트에 올려야 하고 상품이 다르면 매번 상세 페이지를 다르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용품을 만드는 우리 회사에는 CS팀-고객 서비스팀이 따로 없어서 디자인팀에서 온라인 마케팅과 CS를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과 소통도 해야 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극히 일부 고객님은 클레임을 걸 사안이 아닌 데 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지쳐요.

그래도 제가 만든 디자인으로 제가 만든 상세 페이지로 물건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디자인 아이디어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매번 힘들긴 하지만 갑자기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만들었을 때 팀장님한테 칭찬받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만들어놓으면 다른 곳에 적용하기엔 애매하지만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던 스타일로 하나씩 만들 때마다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싶기도 해요.

웹디자인너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포토샵으로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늘 옳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분은 포토샵을 배울 수 있는 컴퓨터 학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GTQ 자격증,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으로 배우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선택한다면 웹디자인과는 혼하지 않아서 쇼핑몰 관련된 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배우는 과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e-비즈니스과로 갔어요. 근데 요즘은 과 이름도 많이 바뀌니 대학 홈페이지에서 배우는 과목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포토샵으로 꾸미는 것을 많이 하면서 꿈을 키웠어요. 학원에 다닐 사정이 안 된다면 혼자서라도 포토샵으로 끄적끄적 해보기를 바라고 손 그림이라도 자주 그리며 꿈을 키우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웹디자인 하면 의류나 액세서리 쪽을 먼저 떠올리는데 저처럼 카 매트나 자동차용품 같은 산업 분야로 오시면 더 든든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버는 세상

기술은 든든한 언덕

애청자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수기 물을 빼서 혈압약 먹는 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에는 늦둥이 중3 아들을 깨우고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죠.

출근길에는 어제 만난 아이도 만나고 어제 스친 아저씨도 만나고 다들 같은 시간에 집에서 나오는지 아침마다 보는 사람이 거의 같아요. 회사 출근하면 모닝커피 한 잔 마셔주고 30년째 재봉틀을 다룹니다.

지난가을부터는 한동안 오리털 재봉을 했는데 완성품이 200만 원에 팔린다고 해서 우리끼리 수다 떨며 놀랐어요. 요즘은 학생 체육복을 만들어요. 9시 땡 하면 뉴스 듣고 귀 쫑긋 여성시대 들으며 재밌게 일해요. 1시에 점심 먹고 다시 MBC 라디오를 퇴근할 때까지 꼬박 들어요. 6시 30분 퇴근과 동시에 다시 집으로 출근하듯이 종종거리며 갑니다. 저녁 해서 가족과 먹고 서둘러 설거지하고 남편과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지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주머니 달기예요. 보조해 주는 분이 체육복 앞판에 초크로 기본 자리를 그려주시면 저는 겹주머니와 속주머니를 스티치하고 지퍼를 달아요. 요즘 만드는 체육복은 검정색과 남색입니다. 오리털 룽패딩 만들 때도 저는 주머니만 달았어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방역복도 만들었는데 방수 재질이라 바느질이 좀 어려웠습니다.

저와 동료들을 보면 일찍 배운 기술은 평생 든든한 언덕이 되어줍니다.

이 사람이 버는 세상

배와 함께 30년

송영호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저는 30년째 조선소에서 밥 먹고 사는 53세 가장 송영호입니다. 조선업 하면 ‘힘들다, 어렵다, 위험하다’ 하시는데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안전한 환경, 안전한 행동만 한다면 괜찮아요.

움직이는 건축물로는 최고인 배는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선박은 절단된 철판들을 붙여서 하나의 박스를 만들고 만들어진 박스는 예쁘게 페인트칠하고 그 박스들을 집을 짓듯이 하나하나 쌓아서 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배를 구성하는 박스 내부에는 사람의 혈관처럼 배를 운행하기 위한 많은 파이프라인과 전선이 설치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배는 도크라는 곳에 바닷물을 채워 부유시킨 후, 암벽으로 이동시켜 많은 검사와 시운전을 마치고 드디어 선사가 인도합니다.

저는 조립되어 나온 블록들의 내외부에 파이프 등 각종 의장품을



설치하는 일을 했어요. 자재를 설치할 때는 도면을 보고 하는데 항상 거꾸로 생각하며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블록들이 거꾸로 뒤집혀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와야 천장에 설치되는 자재들을 바닥에서 작업할 수 있어요.

지금은 수리선에서 제가 해왔던 일과 다른 정교한 모터 수리를 하는데 오랜 짬밥으로 배워가며 잘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힘들다고 꺼리지만 세상에서 움직이는 최대의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은 남자라면 해볼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버는 세상

남편에게 배운 페인트칠

김영순 | 전북 익산시 동서로

저는 페인트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직업이 참으로 매력 있어요.
첫째, 정년이 없어요. 오래 할수록 대우를 받아요. 단 건강하게 살아
내는 사람이면요.

둘째, 고수익이 보장돼요.

셋째, 전국 어디든 출장을 다닐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남자들이 롤러로 넓은 부위를 페인트 바르고 지
나가면 여자들이 사다리 타고 큰 롤러가 바르지 못하는 코너 문틀 옆
을 붓과 작은 롤러로 마무리하면 되고요. 힘든 작업은 사포질인데 팔
이 아픈 건 기본이고요, 미세먼지에 뒤지지 않는 먼지를 많이 먹어요.
이 작업만 아니면 정말 좋은 직업이랍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보상을
받으니 패스!

아쉬운 점은 페인트가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식당에 가면



의자에 신문지를 깔아줄 때 약간 서글프기도 하지만 하루 일당이면 10벌의 작업복을 살 수 있으니 위안을 받습니다.

제 나이 65살인데 어디 가서 하루 2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요즘은 인식이 좋아져서 좋은 기술 가졌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뿌듯해집니다.

저는 페인트칠하는 남편을 만나서 30년 경력자고요. 제 남편은 젊어서 일하느라 술, 담배 미세먼지 많이 먹으며 고생해서인지 이른 치매로 요양원에 있어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한테 기술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말처럼 됐네요. 우리 남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직업을 택하고 싶은데 길을 모르신다면 동네 페인트 가게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면 소개해 주실 거예요. 초보도 일당 10만 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페인트공, 도장공,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 사람이 버는 세상

개인용달 사업

구자익 | 경기도 의정부시

2020년 37년간 수학 선생님이로 제자들과 지냈던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후 제과 제빵, 바리스타, 버스종사자 자격증, 화물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중에서 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국가에서 환경을 위하여 지원하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1톤 포터 트럭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영업을 할 수 있는 노란 번호판도 무료로 달아주었습니다.

먼저 개인용달 사업을 하려면 보통 1종 면허를 따야 하며 여기에 화물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면 가능한데 어렵지 않기에 모든 것을 혼자 다니며 스스로 해결하였습니다.

학교 수학 선생님을 하다가 화물을 운송하는 직업으로 제2 인생을 설계한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석 달쯤 지나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여 올 3월이면 3년이 되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의정부에서 ‘아줌마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이 모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주차장에서 순번을 받아 운송을 마치고 나면 바로바로 현금이 생기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주차장을 나와서 지금은 유명한 운송 어플 2곳에 가입하여, 화물을 받아 영업하는 숙련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는 용달 당당이야~”를 큰소리로 외치고 오늘도 산업 현장을 누비며 달립니다.

바람이 있다면 운송비가 현실화 체계화 되었으면 좋겠으며 화물 소개 수수료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오늘도 운송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사무치는 마음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해드린 게 많으니 못 해 드린 것만 생각나는 거죠. 상실감이 클 만하죠. 7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애도의 길도 슬픔의 색깔과 길이도 정도가 있는 게 아니니 마음 가는 대로 실컷 슬퍼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엄마랑 70년을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획 없어졌다는 게 어떤 건지 가늠하기 힘드네요. 앞으로 한동안 일상에서 훅 덮쳐오는 그리움으로 많이 힘들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큰딸 복 하나 제일 크게 받고 사신 할머니께서 가실 때도 아주 아프지 않으셨으니 맘 편히 지내시길...>

<이제 다들 고아가 됐나? 우리 잘 죽읍시다. 그러려면 건강해야죠. 그리움은 아프지만 아주 건강한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지인들이 보내준 위로의 말들이다.

엄마가 가신 지 두 달이 지났다. 가시고 나서야 사무친다는 말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딘가에 사무치는 마음을 털어놓

는다면 내게는 ‘여성시대’밖에 없다.

아침이면 엄마 방에 불을 켜고, 커튼을 열어서 뒤뜰을 보시게 한다. 저녁 먹고 상 치우고 내 방에 가기 전에 엄마 방에 불을 끄고 조용히 엄마께 인사를 한다. 자잘한 것들을 비운 엄마의 옷장 안에는 선물 받은 것들이 쌓여 있다. 호기심 천국인 엄마는 죄 금해하셨어서 새로운 물건은 일단 거기다 두고 쓴다. 마치 다른 나라에서 본 조상 모시는 풍습처럼 아침저녁 문안 인사를 올린다.

사람들은 잘 챙겨 먹고 기운을 내리지만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러라 싶다. 입에다 먹을 것을 넣고 남남 씹을 기력도 없다. 나물 반찬을 좋아하셔서 부지런히 장 보던 일도 뜨악하니 마음에서 멀다. 어제는 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 상추, 깻잎, 달래 한 줌, 호박 한 개, 오이 세 개 등을 사서 된장찌개를 끓여 고기를 구워 먹었다. 이상하게 속이 니글거려서 찌개 속 두부만 건져 먹고 백김치 국물을 별컥대며 마시니 속이 가라앉았다.

어릴 땐 엄마보다 아버지를 닮았던 말이 듣기 좋았는데 요즘 내 속은 엄마가 90퍼센트 차지하고 계신다. 딸자식들과 살갑지 못했던 엄마의 속을 조금 아는 것처럼 엄마의 삶을 끌어안는다.

가끔 일에 치일 때, 진지하게 물었다.

“나 언제까지 일하지?”

“나 살아있을 때까지는 해.”

“왜 그때까지야?”

“내가 매일 기운을 보내고 있으니까!”

라고 하셔서 속으로 별소리를 다 하시네 했다.

그런데 요새 나는 알겠다. 무얼 해도 마음 깊은 데서 으쌰! 하는 기운이 솟아나지 않는 것을! 야릇도 하다. 내 속 기운은 엄마로부터 비롯됐을까?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마마걸이 된 건가? 그동안 그렇게 의존적이었을까? 믿기지 않는다.

요새는 생각으로만 간직했던 말을 엄마께 많이 한다. 방에는 엄마 냄새가 배어 있다. 우리 집 강아지 두 마리는 엄마를 기다리는 듯 계속 방을 들락거린다.

75세까지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셨고, 그 후로도 그림물감이나 조각보를 위한 재료 구입을 위해 주 2회 정도는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나들이 삼아 다니셨다. 나도 아쿠아로빅을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제 미루던 여러 일을 할 생각이다. 그동안 모든 계획을 엄마 떠난 후로 유보했던 것도 사실이다. 엄마한테는 우리 딸 셋이 있었지만 난 자식도 없으니 노년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다.



교복을 벗고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우리 집 둘째 아들도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교복을 입게 되었다. 교복을 맞추고 입은 모습을 보니 확실히 중학생티가 난다. 초등학교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아직 첫째 아들처럼 교복이 완전히 어울리진 않지만 제법 어른스러워졌다. 희한하게도 같은 집에 사는 형제지만 다른 중학교를 배정받아서 각기 다른 교복을 입고 가는 녀석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

첫째네 학교 교복은 와이셔츠에 재킷이 아니고 맨투맨 티셔츠에 모자 달린 겹옷이라 일상복처럼 자유로워 보인다. 반면 둘째네 학교 교복은 넥타이 없는 와이셔츠에 재킷을 입는다. 둘째의 교복을 본 아내는 당장 세탁을 걱정한다. 그래도 그런 구성이 훨씬 학생다워 보이는 것은 왜일까.

아들들의 교복 입은 모습을 보니 나의 학창 시절이 떠오른다. 남학생의 바지 색은 삼십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회색이다. 물론 난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걸쳤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댔을 땐 나도 아빠처럼 어른이 된 것 같았

다. 그때 잘 배워둔 덕에 여전히 넥타이는 능수능란하게 잘 맨다.

난 교복이 참 좋았다. 매일 아침 스타일에 대한 고민 없이 후다닥 걸쳐 입고 등교했다. 학교에 가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옷, 거기에 학년이 오를수록 엉덩이 쪽은 반들반들해지고, 옷소매 바지춤은 짧아지는 모습까지 통일감을 제대로 갖추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나름의 멋을 추구하는 학생들도 있다. 여학생들은 치마 길이로, 남학생들은 바지통으로 개성을 뽐냈다. 90년대 초중반 대전의 학교는 힙합 느낌의 교복 바지가 대세였다. 모두가 교실 바닥의 청소부를 자처했다. 나도 바지를 끌고 다니고 싶었는데 그게 나에겐 참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자고 일어나면 바지 길이가 짧아져 있었기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복을 벗고 마음껏 내 스타일을 코디할 수 있다는 건 해방감과 더불어 자유로움도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내 오늘 뭐 입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어졌다. 그런 이유로 나도 모르게 마치 교복처럼 자주 입게 되는 옷들이 생겼다. 이럴 바에 라디오 디제이들도 유니폼이 있었으면... 보이는 라디오를 할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IBK기업은행

로망이라는 이름의 카드

준비된 자만이 정상에 오르죠

마치 K카드처럼

프리미엄한 당신이니까

기대 이상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프리미엄한 삶을 위한
IBK카드 K카드, 출시



K-22POINT K
K-22(MILEAGE) 카드

※연회비: 국내점용(B/C) 21만 9천원 (가족회원 6만 9천원) 해외겸용(MASTER) 22만원 (가족회원 7만원) ※여신금융협회 심의판 제2023-C2B-05553호(2023.05.26) 제2023-2312호(2023.05.11) 유효기간(2024.05.10) · 자세한 문서는 거래영업점 또는 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 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유흥경영위반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BKETHICS@IBK.CO.KR ※연회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발정 최고금리 20% 이내).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이태와 같이 적용합니다. 일시불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우이자할부금리. 무이자할부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우이자할부금리. 그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상사법정 비율과 상호 금융거래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대출기준)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 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의 변화는 당신이 중심.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반가운 곳

은행은 그런 곳이어야 하니까

금융생활의 더 큰 만족을 위해

기업은행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은행권 최초 시니어·금융취약계층
(개인 수신/카드 수수료 0원)
이체·자동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수수료, 카드재발급수수료, OTP발급수수료 등